

unjo
o
yung
un
ul
in
sun
jung
ung
nbo
ung
o
young
hee
ghoon
nkyung
a
ng
yung
yeon
suk
eun
on
ni
eo
ni
ng

Yoo Sangsook
Yoo Hwasoo
Yun Minhwa
Yoon Seoyoung
Youn Suehyeong
Yoon Ina
Yoon Jihyun
Lee Keonhee
Lee Mia Kyoungmi
Lee Gilhan
Lee Daeun
Lee Dongmin
Lee Mijin
Lee Minwoo
Lee Minjae
Lee Byunghyun
Lee Sangon
Lee Seonwoo
Lee Sukyung
Lee Seung
Lee Seung
Lee Yeonbo
Lee Yeonbok
Lee Wooyoung
Lee Yunmin
Lee Eunjun
Lee Eunbo
Lee Jaesun
Lee Jaesung
Lee Jungha
Lee Jeonhyun
Lee Junghun
Lee Juha
Lee Junhyeong
Lee Seonhyeong
Lee Seonhyeong

Lee Hanbum
Lee Sunman
Lee Hanjin
Lim Goun
Lim Kyoungyeong
Lim Naeseon
Im Minjae
Lim Yeon
Lim Jongsu
Lee Geun
Lee Jinho
Yim Hyonji
Lee Seon
Jang Seohyeon
Cha Hyeryeong
Lee Hyejung
Chun Minji
Jeon Sehoon
Lee Sunsol
Lee Sunyoung
Lee Seonwan
Lee Seonjiyun
Lee Seunggyoungwoo
Lee Seungdabin
Lee Seungminha
Lee Seunghunbong
Lee Seungho
Lee Seongilgeun
Lee Seongjinha
Lee Seongjinha
Lee Seunghaejung
Lee Seunghyeon
Lee Seungheung
Chun Seunghyeon
Chun Seunghyeon

Cho Seunghee
Cho Ara
Cho Eungchul
Jo Hana
Jwa Dongyeob
*
Cha Minnjae
Cha Jeonghoon
Cha Jiryang
Cha Hyelim
Choi Neulsaem
Choi Dajeong
Choi Seokkyu
Choi Youngae
Choi Insun
Choi Joungeun
Choi Jihae
Choi Hyemin
Choi Hyeon
Choi Yewon
Choi Taeyoung
*
Han Mochee
Han Solha
Han Jooheon
Han Nayoung
Cho Seonhee
Lee Soonyoung
Han Hyekyung
Han Hongsoo
Han Jungah
Han Jangmin
Han Jangmin
Han Jangmin



[190시간]
사업 과정



[기획집]
기획자의 190시간



Instagram
@190hours



Facebook
@190hours

190

HOURS





이 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과 행정의 부족했던 대응력으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침체에 대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긴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을 시간의 흐름과 이슈, 그리고 기획-운영-평가로 이어지는 각 단계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엮어보았습니다.

긴급했던 2020년 상반기의 상황은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행정가)에도 다른 무언가를, 그리고 지금 당장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당장에 두 어깨는 짓누르는 책임감, 의무감이기도 했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190시간] 사업이 앞으로의 예술 정책에 해답이 될 것이라거나, 기획자의 시간을 의미 있게 바라보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라거나, [190시간]의 방향이 정당이라는 선부른 결론이나 선언은 피하고자 합니다. 다만, [190시간] 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 계획과 운영 과정, 그리고 기획자들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의 밀도 높은 고민과 이야기는, 공공 예술(지원)정책과 관련된 많은 이들과 공유할 만한 몇 가지 이슈를 담고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기획자의 호명과 가시화, 기획자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 필수적인 프리프로덕션으로 기획활동 조명, 의미 없는 부가 노동이 되지 않는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양식, 정산 없는 행정에 대한 상상, 신속한 사업 기획, 행정의 압박이 아닌 자발적 과제 설정 방식, 지원 기관 (사업)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아카이빙·홍보·결과 공유 방식 등. 좋은 답을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90시간] 사업 계획-운영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이 분명히 고민해온 과제입니다.

이번 기획집은 기관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싶은 정보만 취사 선택한 결과자료집이 아니라, 사업의 계획-운영 과정의 여러 레퍼런스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이슈의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자와 기획 활동,

코로나19와 예술계와 긴급지원, 그다음과 보고, 그다음에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0시간] 사업의 마지막 과정인 이 책을 만드는 것 역시, 기획자 분들의 기획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평가 연구 파트를 맡아주신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의 연구자이자 기획자인 채태준, 청년오픈플랫폼 Y의 송효원, 책의 에디팅과 디자인을 맡아주신 기획자 이성휘, 디자이너 김동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페이지 이후의 모든 부분은 서울문화재단의 입장이 아니라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해온 많은 기획자의 이야기입니다.

230명 각자의 190시간이 유용했기를, [190시간]이 기획자들이 마주하는 현장에 좋은 영향으로 다가왔/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타격에도,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대면하였던 기획자들의 그 모든 시간과 존재, 현장에 감사함¹⁾을 표하고 지원을 보냅니다.

2020년 12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¹⁾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월 이후, (특별하게 뛰는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을 주창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활동과 존재와 시간을 고민했던 기획자들을 마주할 수 있었기에, 이들로부터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기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190시간] 사업도 계획할 수 있었다.

타임라인	16
프롤로그	24
기획자	26
3월 - 코로나가 바꾼 세상	29
새로운 지원사업의 시작, 고민의 출발 - [190시간] 사업관계자 좌담회	33
4월 - 긴급지원사업의 시작	49
'영역과 절차의 한계, 지역 편차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칼럼) - 오정은	49
기획자들의 이야기 - 기획자 편	59
기획자의 역할은 '커넥티드 포지션' - 고윤정	60
기획자는 외로운가? - 고우리	63
나의 쓸모와 순서 - 길도영	66
비대면 온라인 전시 상황에서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느꼈던 어려움 - 김은지	68
"코로나 이전에도, 원래 있었어야 할 기획자를 위한 지원사업" - 임정서	72
190	76
5월 - 코로나 시대의 기획자	79
[190시간] 참여자 설문조사 기초 분석 결과	83
심의위원 기고글	99
기획자의 일 - 고주영	100
190시간은 안녕했나요? 재난을 견디는 시간에서 체화하는 시간으로 - 김미소	102
'나'를 향한 질문을 만드는 시간,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 - 남윤일	104
훌륭한 지원사업 만들기 - 원대로	106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 유다원	108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 임성연	111
6월 - 기획자의 190시간	115
기획자들이 기억하는 시간들 - FGI 기록	115

기획자들의 이야기 - 190시간 편	121
상태 오류 드러내기 - 강정아	122
서울을 걷는 기획자의 시간 - 구선아	125
다시 공동체를 꿈꿨던 190시간 - 김유빈	127
유예된 시간을 붙잡고 각인하기 - 임가영	129

포스트 코로나	132
7월 - 코로나가 바꾼 기획자, 기획자가 바꾼 코로나	135
기획자들이 평가하는 [190시간]-FGI 기록	136

8월 - 190시간 지원사업이 남긴 과제들	141
외부 전문가 및 현장 당사자 좌담회	142

기획자들의 이야기 - 포스트 코로나 편	163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 권태현	164
코로나19, 공연예술 지속에 대한 고찰 - 장수혜	167
미래의 도입부에서 - 권시우	170
190시간에 대하여 - 정한수	173
시간에 늘기 - 조주리	176

[190시간] 사업 평가 설문조사 선택 응답(소감)	181
------------------------------	-----

부록	
부록 1.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공고문	192
부록 2. 지원 신청서(양식)	196
부록 3.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FAQ	198
부록 4.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선정자 안내 자료	200
부록 5.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204
부록 6. 활동 결과보고서(양식)	206
부록 7. [190시간] 후속 과정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안내문)	209
부록 8. '서울문화재단 [190시간] 사업 평가 및 정책 수요 파악 설문 조사' (조사지 양식)	212

[190시간] 사업에 함께해 주신 분들	221
-----------------------	-----

190 HOURS

타임라인

<공모 설계 및 기획>

3/23(월)
지역문화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사업 담당자 결정 및 업무 조정 논의

3/24(화)
공모사업 설계 및
협력 기획자 섭외

3/26(목)
공모사업 기획회의 1회차

3/27(금)
서울문화재단 추경사업 추진 부서 간,
공모 방향 및 공통 기준 논의 (공모 대상,
지원 방식, 지원 규모 등)

3/30(월)
서울문화재단 추경사업 추진 부서
간, 최종 논의(공모접수 시작/마감
일시 논의)

3/31(화)
지역문화팀 추경사업
협력 코디네이터 2인 섭외

4/1(수)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등
공모 세부 설계 - 외부 기획자
자문회의 (1차)

4/3(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접수시스템 세팅 시작

4/5(일)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

4/6(월)
지역문화팀 협력 코디네이터
(이슬, 최아람) 근무 시작

4/7(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접수시스템 작업 완료

4/8(수)
지역문화팀 사업 홍보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진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9(목)
· 공모 관련 외부 기획자
자문회의(2차)
· 온라인 사업설명회 진행 방안
논의
· 사업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공모 접수 및 선정>

4/10(금)
공모 접수 시작
(10:00 정각 오픈)

4/13(월)
<190시간> 사업 홍보 영상 제작
(외부 기획자 인터뷰 촬영)

4/15(수)
온라인 설명회 준비
(페이스북 라이브)

4/16(목)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위한
FAQ 및 유선 문의 내용 분석

4/17(금)
<190시간> 사업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 진행(14:00 페이스북 라이브)

4/20(월)
공모 접수 마감(19:00 정각 마감)
최종 1,447건 접수 완료

4/21(화)
· 기존 예상 건수보다 2.5배 이상 접수
· 심의 방식 재논의

4/22(수)
· 심의 방식별(A, B, C안) 최종 발표
가능 일정 시뮬레이션 및 최종방안
결정
· 행정심의(필수 제출 서류 미첨부 건)

4/23(목)
신청 접수 결과 및 심의일정 안내 (재단
홈페이지 공지) 게시
- 변경된 심의 방식 상세 안내
- 심의위원 풀 구성
- 엑셀 임의순위 생성기를 통한
우선순위 심의위원 순차 섭외
- 9인의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 확정
- 서류 심의(지원신청서류, 심의 안내
자료, 총평, 서약서) 발송

4/24(금)
· 기존 선정 예정 120건 외,
110건 추가 선정 방안 검토
· 예산 전용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2.4억)

4/27(월)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
서류 심의 평가자료 회신

4/28(화)
서류 심의 접수 집계 및 순위 부여
(서류 심의 접수 순)

4/29(수) 최종 집계 후, 심의 결과 보고 내부 문서 상신

4/30(목) · 심의 결과 보고 대표이사 결재 득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심의결과 발표(18:00)

<190시간 선정자 안내 및 지원>

5/3(일) 선정자 안내 영상 기획

5/4(월)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에 따른 포기 신청 접수

5/6(수) 선정 안내 영상 제작

5/7(목) 선정자 대상 안내자료 발송 (안내 영상, 안내 자료, 협약 매뉴얼)

5/8(금) · 서울문화재단 긴급지원사업 중복 선정에 따른 포기 신청 접수 마감 · 포기에 따른 예비 선정자 지원 자격 승계 고지 후 추가 선정 · 최종 선정자 대상 온라인 협약 시스템을 통한 협약서 개별 발송

5/12(화) 협약서 제출 순으로 지원금 (용역비) 지급 준비

5/13(수) 용역비 지급(1차-40건)

5/14(목) 용역비 지급(2차-40건)

5/15(금) 용역비 지급(3차-40건)

5/18(월) 용역비 지급(4차-80건)

5/19(화) 용역비 지급(5차-26건)

5/20(수) 용역비 지급 230건 전체 완료 (6차-4건)

<190시간 후속 과정>

5/21(목) 선정자 230인 활동 내용 분석

5/22(금) 심의위원 간담회 1차(심의위원 3인)

5/25(월) 심의위원 간담회 2차(심의위원 5인)

5/31(일) 심의위원 서면 자문(심의위원 1인)

6/2(화) 활동 결과 보고 관련 사전 안내

6/5(금) ·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후속 과정을 위한 사전 설문 조사' 진행(6/5~6/11)

6/8(월) 결과보고서 순차 접수 및 검토

6/12(금) '후속 과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응답 결과 분석

6/17(수) 후속 과정 기획회의 1차

6/24(수)
후속 과정 기획회의 2차

6/25(목)
후속과정 설계를 위한 현장 기획자
자문회의
- 이원경(190시간 선정자),
고대웅(을지예술센터 PD)
- 김성우(WESS 공동 운영자,
190시간 선정자)
- 강정아(손과 얼굴 공동 운영자,
190시간 선정자)

7/7(화)
후속 과정 기획회의 3차

7/14(화)
후속 과정 기획회의 4차

7/21(화)
후속 과정(기획집/사업 평가)
준비 시작

7/27(월)
'후속 과정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메일 발송

7/31(금)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8/3(월)~8/28(금)
사업 평가 설문 설계 및 기획집
구성 기획

8/31(월)~9/13(일)
'사업 평가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9/14(월)
'사업 평가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분석

9/18(금)
기획집 기고글 섭외

10/6(화)
기획집 원고 1차 취합

10/19(월)
기획집 원고 2차 취합

10/21(수)
기획집 기고글 추가 섭외

10/29(목)
기획집 원고 3차 취합

11/06(금)
기획집 원고 작성 완료

11/20(금)
기획집 원고
교정교열 및 완성

12/11(금)
기획집 디자인

12/24(목)
기획집 인쇄

12/31(목)
기획집 배포

2020년 초,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으로 침투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하나둘 공공자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지원방안을 내놓았고 대출 정책도 시작했습니다. 이후 차례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시작되었습니다. 그사이 사회 곳곳에서 정책의 빈틈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터져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예술계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연장, 극장, 영화관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예술인들이 서 있어야 할 곳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몇 주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우리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집단 감염은 계속되었고,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기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술계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그늘이 짙어져갔습니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술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대관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코로나로 대면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진 예술 교육가를 위한 <예술교육 연구 활동 긴급 지원>, <예술놀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당장 코로나 상황에도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그리고,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역시, 4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기 2개월 전부터 서울문화재단 내부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왜 지원할 것인가? 지역문화팀은, 문화예술분야 기획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문화팀은 민간과 함께 현장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 현장과 행정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민간 기획자를 섭외하였습니다. 2019년 예술지원 개편을 위한 <THE 넓은 라운드 테이블>의 기획과 실행을 함께했던 이성휘 기획자가 함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90시간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90 HOURS

기획자

190 HOURS

3월 - 코로나가 바꾼 세상

기획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서울문화재단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기획자들의 노동, 작업, 존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전국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한 간병인이 중국 대남병원 발 '슈퍼전파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고, 일본 크루즈선은 멈춰서서 승객들의 하선을 막았습니다.

더불어 예술 공간들의 문도 굳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예술의 무대가 모조리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SAC On Screen'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많은 공연이 여름을 기약하며 연기되었습니다. 예약제를 도입해서 관람객 수를 조절하는 전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을 때도 문화 기획자, 예술 기획자들은 너무 많은 일을 맡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공연의 무대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옮길 것인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전시 관람객 수를 조절할 것인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3월이 시작되고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팀의 김진환 팀장, 유민성 주임, 최아람, 이솔 전문스태프와 민간 기획자 이성휘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문화 예술 기획자 지원사업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전체 틀을 어떻게 만들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기획자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만들지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조차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체 공모사업의 목표와 기준, 규모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은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몇 명에게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논의를 하면서 코로나19의 전망에 대한 기대 섞인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19의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판단 하에 120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메시지로 현장의 기획자를 만날 것인가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지원 유형을 프로젝트 지원으로 규정할지 생계유지를 위한 시간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가 길어졌던 이유는 이번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번 지원사업의 형태와 메시지는 현재 예술 현장을 바라보는 서울문화재단의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 기관에서 수당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모의 형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원사업의 워딩과 메시지는 '시간을 지원하는' 수당으로의 의미를 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0시간"이라는 사업명의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사업의 기획, 메시지, 홍보까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했고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현장까지 지원이 닿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지원사업의 시작, 고민의 출발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관계자 좌담회

대담자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유민성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최아람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전문스태프
	이성휘 190시간 지원사업 기획홍보 pm (하이픈엘와이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진행·정리	채태준 190시간 지원사업 평가연구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송효원 190시간 지원사업 평가연구팀 (청년오픈플랫폼 Y 대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채태준 설계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시기적 요인이 당연히 작동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왜 기획자인가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정책의 대상으로 호출된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0시간]이라는 사업과 정책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의 전 단계의 과정과, 설계할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진환 코로나바이러스가 2월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계속 예측은 되어있어요. 보통 일이 아닌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예술계 차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재단 직원들도 뭔가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계속 2월부터 3월까지 주변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박도빈 기획자(동네형들 공동대표)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꼭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걸 떠나서, 기획자들 중에서 문화 기획자에 가까운 사람들, 자신의 일상의 실천을 강조한 사람들인데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타격이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거든요.

더불어 기획자들이 페이스북 등에서 건너 건너로 이 시기에 팬데믹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이든, 국제적으로 어떤 자구책이나 정부 정책이 나오는지를 정리해서 써 놓는 분들이든, 이런 다양한 활동,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전부터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계기가 되었어요.

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방향성에 대해 공공기관 내에서 공유된 적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문화재단도 추경사업 예산을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니다. 예술지원을 중심으로 총 45억 정도의 추경 예산이 계획된 상황에서, 다른 팀들은 기존의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인 창작자와 예술교육가 중심의 긴급지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빈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박도빈 기획자 등 현장 기획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었죠.

이런 시기니까 ([190시간]과 같은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 저희 지역문화팀의 사업들은 자치구 문화재단이랑 엮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긴급지원의 성격상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구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이나 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기획자'를 지원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채태준 정책의 대상으로 기획자를 설정했으면, 다음 단계의 고민은 '어떻게 기획자를 정의할 것인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 기획'으로 불리는 실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문화 기획자'라는 용례도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유민성 기획자라는 대상을 설정할 때에, 기획자군의 범위는 꽤 넓겠지만, 저희는 기획자-기획자(기획을 주로 업으로 하는 기획자군)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예술 창작 활동에 방점이 찍힌 특정 장르 기반의 기획자, 예술 기획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획자의 범주가 매우 다양하고, 굉장히 넓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공모를 설계할 때뿐만 아니라, 또 공모 신청을 받고, 신청해주신 기획자분들을 보면서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채태준 초기 [190시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모델로 삼았던 사업이 있었나요?

유민성 핀란드의 코네 재단(Kone Foundation)의 예술가 홈 레지던시 지원(Artist Home Residency)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 사업은 예술가가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작업 세계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며, 동시에 다른 이들과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소식은 박지선 PD(프로젝트그룹 도트 PD, 아시아프로듀서플랫폼 기획위원)께서 개인 페이스북에 공유 해주신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고요. PD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190시간]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기획자가 기획 활동의 앞단인 프리프로덕션의 단계를 보내는 시간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들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자의 '190시간'에는, 본격적인 기획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집에서 기획을 위해 준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구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김진환 그 당시에 춘천문화재단에서 일주일 안에 사업 담당자가 공모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빨리 설계하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능한 시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유민성 주임과 기획자들에 대해 많이 알 것 같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어떤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술-장르적 접근을 떠나서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획자들과의 연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성휘 기획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성휘 기획자는 특히 이 사업의 기획을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기획과 홍보를 부탁하게 되었어요.

노동의 관점, 노동을 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문화예술 기획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는가?

채태준 그래서 나온 [190시간] 사업은 지원의 대상을 기획자와 기획자의 '시간'으로 설정했잖아요. 사업의 제목이 직관적으로 '기획자들의 시간을 지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190시간]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산정하였을 때에 지원 금액이 200만 원인데, 연구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이 시간과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의 뒤편에 매우 생경한 반응을 보이신 경우가 있었어요. 작업을 수행하면서 내 일을 시간으로 산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시간'을 지원한다는 것의 의의나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성휘 이 사업 자체를 놓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프리프로덕션의 단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점이었어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고, 김진환 팀장님께서 이것을 역으로 시간으로 산출하셨어요. 그 관점에서 기획자의 활동을 노동으로 여기고, 이를 시간의 관점으로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또 다른 메시지로는, '190시간' 정도의 너무 과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각자가 안전하게 보내면 좋겠다는 점이었어요. 사업을 구상하면서 '노동의 관점, 노동을 하는 시간의 관점이 문화 기획 지원 내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진환 프리랜서 형식으로 대부분 예술계가 공적 지원으로 돌아가는데, 주되게는 창작단체를 지원 위주예요. 그런데 독립 기획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요. 창작 단체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 독립 기획자로 대상을 좁히고자 했어요. 동시에 [190시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원서를 쓰는 것이, 또 다른 일이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 없는 일을 추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프리프로덕션을 지원하고자 했죠.

채태준 평가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 실제로 [190시간] 시간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 증빙의 절차가 유연화된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한 분들도 있었어요.

이성휘 메시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에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서울문화재단의 현장 반응성이 높았다는 것이예요. 현장이 혼란스러워서 정책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진환 팀장님, 유민성 주임님이 연락해서 의견을 구했던 분도 모두 문화 예술 기획자 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층위에 속한 이들이었으니까요.

'문화예술 기획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갈라서 본 적이 없었잖아요. 기획자라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이 속해 있고, 많은 사람과 토론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요. 어느 집단만 고려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곧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기획 비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채태준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수당이라는 것인데, 이 지원금이 문화 기획자 생태계 내에서 유통되는 방식도 흥미로웠거든요.

사례비로 지급해서 선정되지 않은 기획자들과 나누는 사례도 있었고, 다른 예술가들과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획자는 해당 달의 임차료 몫을 내놓기도 했어요.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었나요?

최아람 중간 후속 과정을 설계할 때 기획자 네 분을 만났는데, 그때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획 일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 미팅 비용을 쓰게 되는 경우엔 늘 카페를 가는 비용 등은 항상 사비로 썼다고 하셨어요. [190시간] 사업을 통해 사람을 만나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음으로 기획 비용으로 설정하고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획의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소한 미팅을 위해 쓴 비용도 기획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태준 실제로 기획자들이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내가 밥 먹는 데 써도 되나?'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진환 계약서를 쓰고 정산에 대한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데도 기존의 지원사업 관성이 발휘된 게 아닐까요.

이성휘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가'를 두고 집행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지원금 교부 형식을 용역 계약 방식으로 할 것인가, 기존과 같이 지원금으로 교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를 구분하여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죠. 앞에서 최아람 선생님 해주신 이야기에서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의 사이에서, 혹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조건에서 기획의 활동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 공적으로 치환하고 지원하는 경험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주저하게 된다.' 이 정도면 문화

기획자들이 모두 겪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제약을 풀어놓으니까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지우는 것이야말로 [190시간] 사업이 남긴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김진환 어떻게 잘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의 활동 유형 정도는 정해 놓고 지원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프리프로덕션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든 활동이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이지요.

지원서 자체를 적는 것이 나의 과거를, 앞으로의 일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채태준 [190시간] 사업의 의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시지가 나갔을 텐데요.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메시지도 있을 터인데, 지원사업이라는 체계의 구성 요소인 지원 방식과 결과 보고의 방식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원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업과 어떤 차이를 두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휘 그 부분이 유민성 주임님이랑 함께 토론을 길게 한 점이에요. 처음에 저는 질문은 무조건 하나만 넣자고 했었어요.

유민성 처음에는, 저도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최소한으로 뽑아낸 질문도 가짓수가 꽤 많았어요.

그러나 양식과 형식에 관하여 현장의 외부 기획자분들께 조언을 구했을 때, 최대한 부담을 덜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도 자유 형식으로 열었고 질문도 최소화하면서, 사실 담당자로서는 양식을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정말 작성하는 입장에서도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식을 안내하기 직전까지 '열어 놓는 방식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성휘 맞아요. 그래서 양식 안에 설명하는 내용이 무척 많아요. 공모 신청 시, FAQ 나갈 때에도 설명을 많이 달았어요.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두 가지 핵심은 제안해주신 프로젝트에 '190시간만 할애해도 가능한 규모의 활동과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정도의 분량이라면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적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거죠.

채태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어렵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 보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어요. 개인의 서사를 정리하면서도 취약함을 요청하지 않는 경험이 새로웠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김진환 저희는 처음에 600~700건 정도의 지원 신청 건수를 예상했었어요. 처음에는 120건밖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원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래도 신청서 쓰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했었어요. 지원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서 자체를 적는 것이 나의 과거를, 앞으로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채태준 결과보고서는 장학사업 펠로우십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거든요. 결과보고서의 형식은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는가요?

이성휘 문서나 양식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마다, 유민성 주임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많이 떠올라요. 어느 때는 버전이 15개씩 나왔었는데요.(웃음) 문장의 단어 하나도 엄청 신경을 썼었고, 문서의 틀과 양식 등을 계속해서 논의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질문은, 사실 일지의 형식이나, 에세이의 형식이나,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었어요. 중요한 점은, 1번 질문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획자의 언어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고민한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싶었어요. 이 다음은 어떻게 기획자 분들이 고민하였는지가 궁금했어요.

결과물이 190시간에 한정되어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봐요. 190시간을 통하여 바로 직접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뒤에 이 시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도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190시간] 사업이 본격적인 기획 활동(혹은 기획의 결과물) 그 앞단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활동 결과물 제출의 경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고, 불가피하게 제출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혹은 제출은 가능하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경우에는 공유 미동의를 체크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었어요.

이성휘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것이 의무 사항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를 물어봐 주었다는 것은 이번 사업이 첫 번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담당자가 현장을 궁금해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대부분 행정은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인 경우가 많아서,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지원이 생태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한다는 것이 이번 담당자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채태준 계약의 방식과 지원금 교부의 방식에 관한 고민들도, 지원과 결과의 절차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체계에서 정책 대상자가 [190시간] 사업의 목적을 인식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김진환 시상금이나, 시간에 대한 수당이나는 고민이 있었는데, 시간에 대한 노동 가치로 접근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으로 진행 했어요. 행정적으로는 용역 190시간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했고, 용역 계약으로 정하니 이를 정리하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계약 사이트 이용해서 지원사업에서 교부 신청서를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고, 2주 만에 온라인 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바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불안한 것은 있어요. 지원금을 용역비 방식으로 처리하고 결과보고서에서 결과 보고에 증빙이 미흡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있기는 했으나, 지역문화팀의 특성상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었어요. 지역 문화 관점에서 기획자의 용역비를 잡아봤던 경험도 있었구요.

유민성 보통은 과업이 종료되고 과업 결과물을 제출해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공모사업의 경우, 긴급추경사업이라는 점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100% 용역비 선지급 방식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었어요.(현재는 기존의 기준과 동일하게, 선금 100%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핵심에는 선례가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지. 코로나 이후에도 200명을 다 대면하여 서명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 이것도 고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선례로 남아서 다음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궁금해요.

기획자로서 당연히 하는 활동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기획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억되었으면

채태준 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어요.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다, 노동에 대한 존중이다, 인정받는 경험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간소화된 지원사업이어서 편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본

사업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길 바랐나요?

김진환 예술 기획이든 문화 기획이든 간에

스스로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기획을 위한 시간이든 돈이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코로나 이전에는 창작자들이 너무 많은 프로덕션 경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초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공공이랑 맞물리며 기획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경쟁이 벌어지는데 진짜 내가 필요한 프로덕션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면서 [190시간] 지원사업이 재난에 대한 생계지원금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프리랜서 지원금도 나올 것이고, 뉴딜 사업 등. 활동의 지속이라는 것을 잡기는 했지만,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프리랜서 기획자들에게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전체에서의 의미를 떠나서, 빈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돈을 나가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최아람 긴급지원의 성격과 기획자를 호명하고, 과정을 지원하는 이전에 없었던 특수한 지원사업이다 보니 이후 행정가들에게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기록집을 만드는 목적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채태준 이 전 과정 자체를 아카이브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에 참여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재단의 노력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유민성 전체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이 전 과정을 담는다는 것이 사업 담당자로서는 (설계 당시에도) 어색했던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업의 전체 과정(어떻게 설계하게 되었고, 운영하였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담는다는 것이 어색해요.

그동안 사업 아카이빙 책자라고 하면, 선정자의 선정 작품 혹은 선정 활동 내용을 모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당연히 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듣기도 하고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지금의 후속 과정들을 설계하게 되었어요.

채태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질적으로 아쉬운 점은 무언가요.

김진환 레퍼런스를 삼을만한 것이 없다는 점, 왜 이 시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향후에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획서나 관련해서 꼼꼼히 읽어 볼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에 아쉬웠어요.

유민성 사업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저희 사업에 선정된 기획자분들의 얼굴과 현장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제일 아쉬워요.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중요한 기회인데, 기획자분들의 현장을 찾아갈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중간 후속 과정을 설계할 때, 저희가 간절한 마음에 기획자 네 분을 찾아가서 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기획자 230분의 기획서를 모두 읽었지만, 기획자분들의 이름을 외부에서 보면 딱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고 싶는데 바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항상 외부에서 기획자 이름을 보면 꼭 자료를 찾아봐요. 그러면서 계속 익히는 거죠.

최아람 저도 민성 주임님과 비슷해요. 대면하지 못했던 점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서류와 유선 상으로 만나다 보니, 관련해서 230명 이름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기획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깐 보면 반갑기도 해서 팀 내에서 소식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성휘 긴급지원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재난지원이 아니라 기획자 지원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것이 있고, 추후 예산이 더 있었으면 용역 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방식으로 추적조사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금으로 풀렸을 때는 또 사용 방식이 달랐을 것이고, 추적조사를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았다면 조금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기, 긴급지원의 형태로 190시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술 현장, 문화 현장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채태준 '1~3월의 보릿고개 기간은 기획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텐데 재단의 행정이나 프로세스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성휘 [190시간]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재난으로 인해 생긴 긴급지원이라는 점, 그리고 처음으로 기획자를 지원했던 점. 이 두 가지는 향후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리되어, 각각에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해요. 더 나아가, 기획자 지원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보릿고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긴급지원으로 12~3월에 풀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 좋겠어요.

김진환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예술청에서는 기획자-매개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있기도 하고, 그쪽이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 차원에서만 할 고민은 아닌 듯해요. 이 사업의 좋은 성과를 재단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많고요.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프리랜서 기획자가 그만두었고, 더 이상 예술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떤 공간들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아카이빙을 신경 써서 해도 재단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연구자들이 오히려 예술 현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기획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번 일을 하면서도 더 느낀 점은, 연구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190시간 사업도 애매한 게 모든 공공예산은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지금 예술계 전반에 대한 현황들이 어떤지 큰 그림(작은 현장으로 부터의 관찰)에서 분석이 필요한데 1년을 놓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190시간을 이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예술 현장, 문화 현장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성휘 이 집단(서울문화재단이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혁신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청년 정책이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2~3백만 원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기획자들을 계속 호명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개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재난까지 맞물리면, 재난의 상황에서 그들을 호명하고 되찾는 것은 어려울 듯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나온 다른 정책적인 빈틈을 새롭게 호명하고 묶어내는 작업을 12월부터 3월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 200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무척 다른 실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단위의 논의로는 쉽지 않으니, 서울에서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190시간을 이어서 그들을 찾고, 묶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그 다음 단계의 연구 혹은 다른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채태준 문화예술 기획자라는 정체성과 범주가 모호할지라도,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인증한 문화예술 기획자 풀이 230명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확실하게 최소한 정책 경험의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기획자로 불리는 이들이 [190시간] 사업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차후 어떠한 역할로 또 어떠한 활동을 이어갈지 궁금하더라고요.

더불어 문화예술 기획자를 정의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 기획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광의로 정의할 것인가, 대상을 어떻게 예각화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후 더욱 사업이 발전되는 형태로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으로 출발을 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긴 시간 이야기 나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0 HOURS

4월 - 긴급지원사업의 시작

당시 문화예술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과 기관지에서는 '초토화된 문화예술'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의 칼럼부터 문화예술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만 필요한 것이냐는 비판 섞인 칼럼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우리의 4월은 닫힌 공연장과 전시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상의 빈틈을 그리고 가려져 있던 많은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수록된 글은, 문화정책리뷰 (Culture-policy-review.tistory.com)에 실린 190시간 사업 선정 기획자인 오정은 비평가의 글입니다. (2020.6.5.)

[호외: 팬데믹과 문화 정책]

영역과 절차의 한계, 지역 편차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발표(2020. 2. 23.)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그간 휴관을 하고 있었다가 예약제로 조금씩 관람객을 맞이해가던 수도권 다수 문화시설은 최근 또 다시 문을 닫아야했다. 전 세계가 고통받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술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3월과 6월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아트바젤 홍콩, 아트바젤(스위스) 등 국제 아트페어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연기되었다. 비엔날레도 대폭 축소되거나 잠정 연기되었다. 짝수 해인 올해는 베니스 건축비엔날레가 5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8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축소 변경되었다가 얼마 전 내년 5월 22일부터 11월 21일로 연기한다고 재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홀수 해에 개최되어 오던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은 2022년 4월을 기약하게 됐다. 3월 10일 개막해 6월 8일 폐막 일정이었던 시드니 비엔날레는 전염 우려로 일찍이 3월 24일 문을 닫고, 구글 기업과 손잡고 VR전시와 팟캐스트 등 온라인 비엔날레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70만을 돌파하고 사망자 수가 10만여 명에 이르며 코로나 최대 피해국이 된 미국도 주요 오프라인 전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휘트니미술관(휴관 3월 12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휴관 3월 17일~), 구겐하임 미술관(휴관 3월 18일~), 뉴욕현대미술관(MoMA, 휴관 3월 30일~)이 휴관하고, 아트시장을 주무르는 첼시마켓 인근의 화랑가도 전면 문을 닫은 지 석 달이 되어간다. 루브르, 팔레 드 도쿄, 에르미타주, 대영박물관, 모리미술관도 장기간 휴관 중이다. 바티칸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6월을 맞아 이제 갓 재개관을 속개하고 있는데 그 향방을 지켜볼 일이다.

국내 상황을 보면 아트부산이 기존 5월에서 11월로 개최일을 연기했고, 한국 국제 아트페어(KIAF)가 원안인 9월 열릴 예정으로 준비 중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91>

오정은 비평가 칼럼 원문보기

이며, 광주 비엔날레, 대구사진 비엔날레, 전남국제 수목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9월 개막 계획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미술관·문화 시설은 사전예약제와 좌석 간 거리 두기 방침을 두고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유래 없는 위기, 정책의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한 사업 과정을 아카이빙해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알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은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불안 심리의 영향으로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및 연관 소비 활동이 급감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피해가 막중한 만큼 부처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지역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4월 초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공모'에 이어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공모', '예술교육 연구 활동 긴급지원 예술교육 연구 활동 계획안 공모' 사업을 꾸려 4월 29~30일 선정 예술인 발표, 5월 중순 지원금 교부를 마쳤다. 경기문화재단도 공공예술 프로젝트 '백만 원의 기적', 공연예술 프로젝트 '드라이빙 씨어터', '경기도 전업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 구입 및 활용' 등 신규 사업 공고와 참여예술인/단체 모집을 완료했거나 선정 중이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관료 피해 및 소독방역물품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문화재단은 '공연업·전문예술단체 분야 특별지원' 사업으로 피해예술단체에 '생존자금' 100만 원을 지원했고, 부산문화

재단은 소규모공연 전시장 소독을 대행 하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소규모 예술 공간 방역지원'사업, 청년예술인이 어린이 학습 영상 콘텐츠 제작하면 비용 60~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구석 프로젝트'를 시행한 데 이어, 지역 예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코로나19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의 중위소득 구간과 가구원 수를 반영해 30~50만 원을 지급하는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사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사업에는 지원영역의 빈 고리와 절차적 아쉬움, 지역 간 심각한 지원 편차가 여전히 아쉬움이 들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유례없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지역단체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기획하여 공고하고 예산을 집행해가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해석할 만하다. 이런 점은 현장예술인으로서, 직접 기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위의 입소문과 평가를 듣고 체감하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점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문화재단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지원 신청이 몰리자 선정자 발표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추가 증액해 지원 규모를 늘리기도 했다. 새롭게 개설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자의 높은 규모가 예술계의 한시적 피해 현황을 뜻하고 마는 지표로 그칠 바는 아닐 테니, 사업 주제의 확장성과 내용의 실험성, 소액다건 공공지원에 더불어 절차·증빙의 간소화 등에 대한 예술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청을 잘 해석해 추후 사업설계에 적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올해를 포함해 과거 몇 년간 현장예술인이자 때로 문화기관 행정인력으로서 경험한 예술 공모 과정을 볼 때 다음의 문제점을 상기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의 공모사업이 일시에 시작되고 마감되기 때문에 예술의 창의성을 지원한다는 예술 지원이 일률적인 주기와 지루한 형식 보편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또한 기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술인들의 생계주기, 예술적 성장주기와 지원제도가 연결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방대한 지원 건수에 비해 소규모 지원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명확한 심의 평가 기준으로 예술가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사업 신청 경로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필수 작성란과 필수 첨부파일 양식의 입력란이 중복되는 것처럼 불필요한 텍스트와 과도한 개인정보 요건에 응해야 하는 등 무시하지 못할 피로감이 누적되는 문제들도 있다. 코로나 피해 지원처럼 긴급 수혈, 복지가 목표라면 현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한 지원 절차를 절실히 기대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례를 직접 경험해 당사자로서 합당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술가의 발언, 자발적 논의 테이블이 지금보다 활성화되면 좋겠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국민 지원금 신청 플랫폼이 이번에 개발·활용되었고, 6월 들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가 열렸다. 여러 시행착오의 터널을 통과한 만큼, 이러한 사례들이 e-나라 도움을 비롯한 예술계 기금 플랫폼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대와 공감

나는 서울문화재단이 4월 30일 발표한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 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공모'의 심의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다. 1,447명이 지원하면서 기존 120명 지원 계획이던 데에서 230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 사업이다. "지원서를 읽으며 울컥하기도 했고 예술에 대한 태도나 관심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라고 적은 한 심의위원의 심사평은 곱씹어 보게 되었는데, 방대한 지원서의 수많은 활자를 보는 심의 과정을 건성으로 대하거나 모종의 권력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임하는 모습으로 생각되어서였다. 그의 표현에서 지원자들의 기획서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꺼내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예술가의 고백”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기획자를 호명하는 지원사업은 처음이라, 많은 기획자가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공모에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분의 기획안을 읽어보며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고 있는 예술가들은 거대한 재난 상황 가장 앞에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미 예술가와 기획자들은 그 너머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음”, “활동력을 보유한 존경받아야 할 기획자들과 새로운 감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자들 모두가 고려될 수 있는 행정지원력(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등을 말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공감되고, 지원자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 감사하게 되는 문장이었다. 심의 결과에 언급된 것은 선정된 기획안의 제목일 뿐이지만 해당 활자들에서 예술가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위기의식과 더불어 시대 전환의 아이디어에 관한 공감과 연대를 느끼기도 했다. 이 사업은 담당 부서인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이 추후 영상으로 대체 배포한 안내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독립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사업이라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획과 실행, 특히 답론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그간 문화예술계에 감염처럼 퍼진 공모사업의 복제성과 회전주기에서 우회할 다른 경로를 기대하게 한다.

100여 일 동안 멈춘 시계처럼 작동하지 않는 문화예술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활자와 영상에서 추적해본다. 기본소득과 그것에 내포된 권리 보장의 주장과 실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양상도 본다. 지난 5월 20일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이 국회

통과되기도 했다. 범람했던 예술행사가 멈춘 사이, 보이지 않던 갖가지 새로움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술인 복지를 다루는 사회의식과 체계의 세심함도 조금씩.

본 칼럼을 책에 담은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예술행정이 가져야 하는 태도까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4월은 공모 홍보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기획자들에게 ‘190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알리는 시기였습니다. [190시간] 팀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사업의 주요한 메시지들이 불편함 없이 현장의 기획자들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역문화팀에서 관리하는 2개의 기존 사업 SNS 채널 외에 새로운 채널을 개설할 지 논의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많은 이들에게 홍보하고자 기존의 ‘도시플레이어 포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아래 글과 함께 공모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문화예술 분야 독립/프리랜서 기획자 군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활동이 멈추어버린 듯한 지금, 단 #190시간만이라도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낳는 시간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시간’의 결과물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 보고는 ‘190시간의 일지’ 등의 증빙 자료가 아닌, ‘190시간의 의미’ 작성만으로 충분합니다.’

‘200만 원’이라는 소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마저도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쟁이 과열될 것 같아서, 약간은 구구절절했던 설명과 함께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190시간’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때문에 선정을 위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사업 이후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꼭 필요한 곳에 가닿기를 바랄뿐이었습니다.

190 HOURS

기획자들의 이야기 - 기획자 편

기획자의 역할은 '커넥티드 포지션' - 고운정

원고를 청탁받고 긴급하게 돌아갔던 지난 약 6개월간을 되돌아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몇 달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2월에 제법 큰 전시를 맡게 되었는데, 그 전시를 진행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막 확산되면서 이러저러한 문화예술정책이 쏟아져 나오던 때라서 전시를 열면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채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은 4월에 모집하여 약 2달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다원예술과 관련한 기획을 많이 한 편인데, 다른 기획자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다원예술 기획은 특히 평소에 전혀 함께할만한 역할이 아닌 데, 갑작스럽게 전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공동체가 되어 일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 역할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혹은 공간과 사물을 엮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언제나 일과 사물, 사람의 연결고리에 중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6월까지의 마침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몇몇 개인전과 글을 쓰거나 2020년 말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위해 회의를 해야 하는 일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어떤 전시의 경우에는 진행 비용과 기획 비용까지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독립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기획을 하면서 개인적인 비용까지 어디에서인가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비용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일을 고르는 것은 좋은 기획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에서도 작가에게서도 겨우 본인들의 활동비용과 작품 제작비용만 감당하기에도 힘든 처지에 기획 비용까지 바랄 수는 없던 차에 마침 190시간 기획자를 위한 기금이 나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지원 방식으로 기획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는 되었지만, 기획자의 일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는지 최종 완성본을 보기 전에는 눈치채기가 어려운 활동으로 '전화하기', '카톡하기', '이메일하기', '말하기', '운전하기'의 연속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이 매우 사적인 영역에 놓여 있지만, 기획자에게는 공적인 역할을 늘 준비하게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수면 위로 떠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금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 과정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번 기금에서도 생각하고, 다음 창작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포괄하여 지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의 과정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획자의 역할을 코로나19의 긴급지원만으로 엮을 것이 아니라 향후 기금 사업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 사업에서 본인 사례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인건비는 다른 기획이나 글쓰기로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덧붙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금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금 사업에 의존하는 것이 맞느냐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복지 차원을 넘어서 자유로운 창작물이 기금 사업을 통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자는 외로운가? - 고우리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으로 갖게 된 시간 때문에 (혹은 덕분에) 랜선을 통해 만난 질문의 물음표가 '외로움'을 꺼내 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외로운 클래식음악 공연 기획자입니다. 대중음악에 비하면 아직도 편향성이 존재하는 분야인 클래식 음악, 그중에서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옛 음악'을 중심으로 기획하는 것을 선호하며 소속 없이 홀로 치열하게 작업한 지 8년째 되었습니다.

기획자는 공연을 준비할 때 가장 행복하고 설레면서 즐겁습니다. 주로 이런 때에는 연주자들의 연습실에 1인 관객으로 앉아 그들이 연주하는 장면에 출연합니다. 그런 우아하고 매력적인 시간을 오롯이 홀로 갖게 되니 그 시간은 내 직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때인 셈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부터 온갖 사건들이 터지고 "내 이놈의 음악회, 이번만 하고 진짜 그만둔다"(사실은 더 강하고 단정하지 못한 단어들 사용)라며 은퇴를 굳게 마음먹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공연은 무대의 크기나 규모와 상관없이 '이해 불가 초섬세 디테일을 지닌 고퀄리티 공연'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 음악회라고 마음속 깊이 외치면서 무대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이중적 결과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연 당일에는 진행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니 정작 무대는 마주 보지 못합니다. 대기 커튼 뒤에서 연주자 컨디션, 관객 표정을 살피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면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외로웠던 나 자신에게는 관객, 음악, 연주자도 다 사라지고, 기약 없는 '다음'이라는 시간들만 덩그러니 남아 흐릅니다.

저는 올해 1~2월을 유럽에서 보낸 초특급 행운아였습니다. 시차 적응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질병관리본부의 소식을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3월, 190시간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전시, 공연도 강행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8월 15일 오프닝을 하자마자 열 체크 파티로 시작하여 23일 방역 파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마 190시간이 없었다면 8월 15일의 공연 시작도 8월 23일의 전시 종료도 없었을 것입니다. 190시간 동안 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 공간과 자료들의 존재를 다시 일깨우고 랜선을 통해 사람들과 예술적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랜선책가도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에 필요했던 방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세상 밖으로도 가져올 수 있었고, 또한 이 작업을 통해 이후 창작 활동에 필요한 아날로그적 자료들을 온라인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공유하는 랜선 자료 속에 즐거운 기억으로 인해 글의 첫 시작을 '코로나' 때문에와 '시간' 덕분에' 중에서 무엇을 택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모두가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 와중에 기획자도 외로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획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일은 혼자 무엇을 위해

애쓰고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로움은 창작 과정에서의 또 다른 느낌이니 심지어 그것도 마음에 기록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로운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쓸모와 순서 - 길도영

프로그램 하나가 몇 달째 부유하고 있습니다. 5월에 시작하기로 한 프로그램이 10월까지 밀렸습니다. 기획자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기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법인데, 그전 곧 기획자의 쓸모를 입증해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간 제가 해온 일이 사회에서 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에 마이크를 건네는 일이라는 사실을 3년 차가 되어서야 알아차렸습니다. 2020년은 드디어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게 된 기획자로서의 쓸모를 조금 더 드러내보자고 마음먹은 해였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 사업은 탈북 아동과 함께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주 스무 명의 탈북 아동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최종 버전의 수업 일정표를 센터로 보냈습니다. 애초에 5월에 시작해야 했던 프로그램이지만 휴교 연장과 함께 센터도 문을 닫아 잠정 연기, 다시 8월로 조정할 일정은 광화문 집회로 상황이 악화되며 또 잠정 연기,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에 다시 시작해보자고 날짜까지 정하였지만 과연 시작할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올해 기획했던 장기 프로그램은 총 세 개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년 여성, 탈북 아동과 함께 글을 쓰고 책으로 엮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계속 연기되다 중년 여성-학교 밖 청소년-탈북 아동 순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건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는

‘혹시나’하는 가정이 계속 따라오는데, 참가자나 강사 중에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기획자의 부담이 가장 커지는 집단도 탈북 아동입니다. 가장 나중에 만나게 되는 집단일수록 기획자가 가지는 불안은 커지지만, 참가자의 참여율은 그 불안의 크기에 반비례함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 사업의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제가 화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취약한 존재부터 멀어지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에 순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순서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끼리 당장 내년이 걱정이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직접 꺼주는 월세이자 밥값이 될 뿐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려 준다는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위로는 ‘내년에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풀릴 수 있을까’하는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존재하도록 하는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서로의 생존을 해치는 일이 될까 봐 두려워됩니다. 만나고 싶었던 목소리는 자꾸만 멀어지고, 판을 까는 사람이 바이러스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나의 쓸모를 자꾸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쓸모에 대해 생각하다가 나의 순서는 어디쯤일지에 대한 불안이 불쑥 찾아옵니다.

비대면 온라인 전시 상황에서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느꼈던 어려움 - 김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게임을 제작하는 사운드 아티스트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술가와 기획자들은 달라진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예술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전시, 퍼포먼스를 기획해야 했고 이 일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저는 2020년 Ars Electronica의 웹 전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비대면 전시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온라인 플랫폼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기존 작품들을 어떻게 웹으로 옮겨오며 창작 당시 목표로 하였던 감상 경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느꼈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나누고 싶어 웹페이지에 기고했던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20 Ars Electronica Garden Seoul: Garden of Third Life>의 <제3의 정원(Third Garden)>에 참여 예술가 에세이로 기고했던 글입니다.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로서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종류는 천차만별이고 그것들의 기술적 표현 범위는 다 다릅니다. 작업 기간에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의 호환성, 사용하는 툴에 따른 기술적 제약을 실제로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디지털 아트라고 하면 물질적·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 디지털적 제약 또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디지털 창작물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있어서 툴의 역할이 지배적이고, 서로 다른 툴과 플랫폼의 생태계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작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맞은 뉴노멀 시대에 디지털 창작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플랫폼 간의 호환성과 기술적 제약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제작자, 기획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제약과 호환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어째서 창작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비대면 전시 혹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는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창작자들에게도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단위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안드로이드와 iOS, 웹의 세 가지 채널로 동일한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창작자들은 분명히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을 가진 모바일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서 어떻게 완전한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화를 보다 보면 물리적

화면 크기의 제한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의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가 물리적 공백을 채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채운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오히려 '지워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무한하게 확장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전시는 물리적 공간을 크게 혹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감상자에게 작품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들어오는 오브제를 고정한다든지, 동선을 만든다든지, 소리를 크게 트는 식으로 감상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비대면 상황을 포함한 개인적 감상 경험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정신적 세계의 확장을 이끌어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다면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다 보고 갈게!'라고 대답하고 싶을 만큼의 몰입을 이끌어내고 싶고 이 몰입은 사실 작품이 디지털의 포맷인지, 아날로그의 포맷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전시의 성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효과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매끄러운 기술적 처리가 적용되었는지, 심지어 UX 측면의 접근도 아닌, 콘텐츠 그 자체가 감상자에게 작품에 몰입하여 그만의 정신적 세계를 강한 힘으로 구축하게 하는 힘을 가졌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트 게임을 제작하는 작가이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자로서 플랫폼의 불일치, 디바이스 간의 다양성은 곧바로 예산의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애플블리시를 위하여 각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자를 구인해야 했고 개인의 계정 관리와 데이터 통신 문제 때문에 서버의 사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트 게임을 제작하며 전시 혹은 공연으로 선보이면 되겠거니 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 상업 게임들은 이미 조직화하여 체계를 갖추고 산업을 이룰 동안, 아트 작가들은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트 게임을 만드는 작가이든,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의 작가 혹은 기획자이든, 비대면 상황에 요구되는 앱 혹은 웹 플랫폼의 사용은 이제 흔하게 요구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기술적 고민과 마주할 분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적 제약 때문에 창작에 한계를 느끼는 작가, 기획자들이 모여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원래 있었어야 할 기획자를 위한 지원사업” - 임정서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기획 문서를 좀 더 꼼꼼히 뜯어보고 구체화하는 상상을 하는 데 더 시간을 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작가 겸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창작 활동이 뜸해지며, 기획을 다른 때보다 더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류도 뜸해지고 갇혀 있는 답답함과 지루함을 기획 아이디어에 쏟아 부어 기획 작업을 마치 창작 활동처럼-소설 쓰듯-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상상의 나라를 너무 크게 펼치는 바람에, 실제 발표 기간에는 원래 코로나 퍼지기 전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연초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취소되는 일정, 미뤄지는 공모 등으로 2020년의 기획 및 작업에 걱정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맞춰진 지원사업이 다수 났고, 다행히 190시간에 선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고립의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큐레이팅은 무엇일까 등의 크고 작은 궁금증과 고민을 바탕으로 공부하며 기획 아이디어를 풀어나가며 기획해볼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9년 말부터 총괄 기획으로 참여한 인디아트홀 공의 ‘지구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단체전에서도 작가진과 함께 비대면과 문서로 소통하며 협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보다 깔끔하게 회의에 초점을 맞춰, 화상 통화, 온라인 문서로 주고받으며 밀도 있는 기획자와 작가 간의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참여한 작가님과도 (국내에 계신 작가님들과의 실제로 만나는 것이

어려웠기에) 온라인을 통한 소통으로 장소적 제약 없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막 창궐한 상반기에는 여름의 단체전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집에 머물러 기획과 구상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며, 전시 기획에서 파생된 작업 아이디어를 ‘병과 식탁’ 다원 퍼포먼스 시리즈로 전시와 함께 확장해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반강제적으로 주어졌지만, 이를 잘 활용해 자양분을 쌓으며 기획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190시간의 도움도 코로나로 끊어진 일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어주어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도 없었고, 지원금도 없었더라면 ‘구해지지 않은 일, 더 확산되는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코로나 블루에 무기력하게 시달렸을 듯합니다.

기획이란 계획과 구상,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이며, 실상 풍부한 배경지식과 리서치를 통한 아이디어션이 필요하고,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획이 중요성을 알면서도, 무형의 아이디어, 비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상되는 가치 책정을 잘 하지 않는 사회적 습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 기획자는 더욱더 스스로의 노동과 가치를 인정받거나 주장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발표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사업에서 실제 진행비를 집행하고 나면, 기획자에게 책정할 인건 사례비가 넉넉하지 않거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단 지원사업에서 지원자 당사자(대개 기획자 또는 작가)에 대한 본인 사례비 책정이 불가능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90시간 기획자를 위한 지원이 더 반갑습니다. 무슨 일의 시작과 발화의 지점에서 많은 일을 하는 역할인데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190시간 지원사업이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기획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처음 시도되었지만, 그전부터 당연히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90시간 이후에도 작가 또는 창작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사업과 별개로, 기획자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190 HOURS

190

190 HOURS

5월 - 코로나 시대의 기획자

5월은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이 준비하던 많은 전시, 공연, 축제들이 본격적으로 연기되거나 혹은 취소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매년 찾아오던 도심의 축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작게나마 우리를 채워주던 소형 전시들 역시 사라지며 예술가들의 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빈틈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기획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4월 말, 선정이 완료되고 참여자들과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190시간] 팀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서울시 청년청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재단 내의 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아도,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거나 아직 이후를 고민하는 단계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고민이 깊어지던 그즈음, 온라인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해도 용역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덕분에 비대면의 상황에서,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여 개별 용역 계약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은 생각보다도 더 간단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본 후 서명이 필요한 곳에,

안내대로 서명하고, 필수 제출 서류는 이미지로 붙이기 하여 제출하면 계약이 완료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좁은 화면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필수 서류들은 여전히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간단해진 협약방식과 절차가 가져온 것은, 비단 방식에서만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속한 계약 처리로 인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역시 온라인 계약이 가져온 혁신이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비대면의 상황을 타개하며 계약과 교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자들이 느끼기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지원사업 및 예술사업 중 손꼽히게 빠르고 간단하게, 계약이나 지원금 교부가 이뤄진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0시간] 참여자 설문조사 기초 분석 결과

아래 연구는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을 글로만 기록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의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획환경의 상황과 코로나로 드러난 기획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는 양적 연구인 설문조사, 질적 연구인 FGI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지원사업 신청자 1,447명 중에서 28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사업 선정자 230명 중에서 149명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 조사는 8월 31일(월)에 시작하여, 9월 13일(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사업 전체 신청자, 선정자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숫자만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들의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번 기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합니다.

1. 신청자/선정자 중 응답자 일반 사항

(1) 성별

①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신청자의 성별 분포(N: 280/결측값: 6)

* 결측값(missing value): 설문 무응답 등 누락된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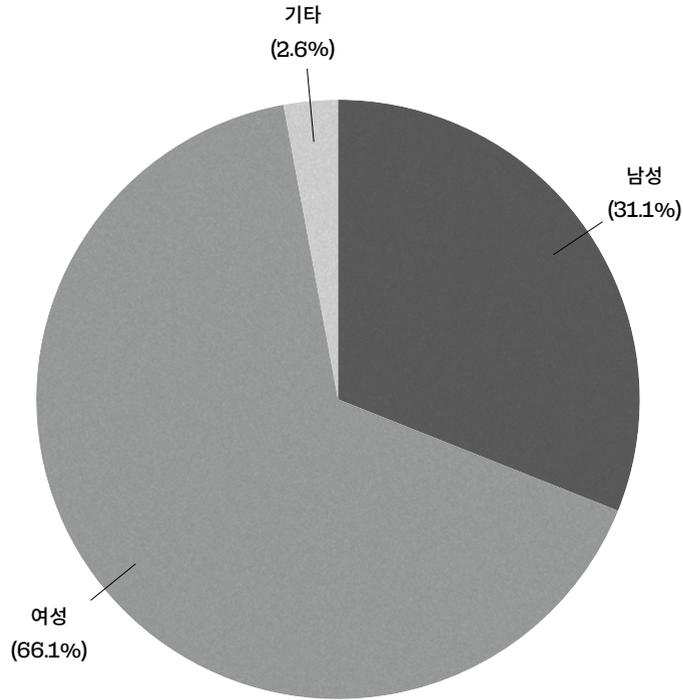


그림 1. 전체 신청자 중 설문 조사 응답자 성별 분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여성이 185명(66.1%), 남성이 87명(31.1%)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성(Gender)으로 자신을 정체화한 경우는 8명(2.9%)이었습니다.

②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성별 분포(N: 146/결측값: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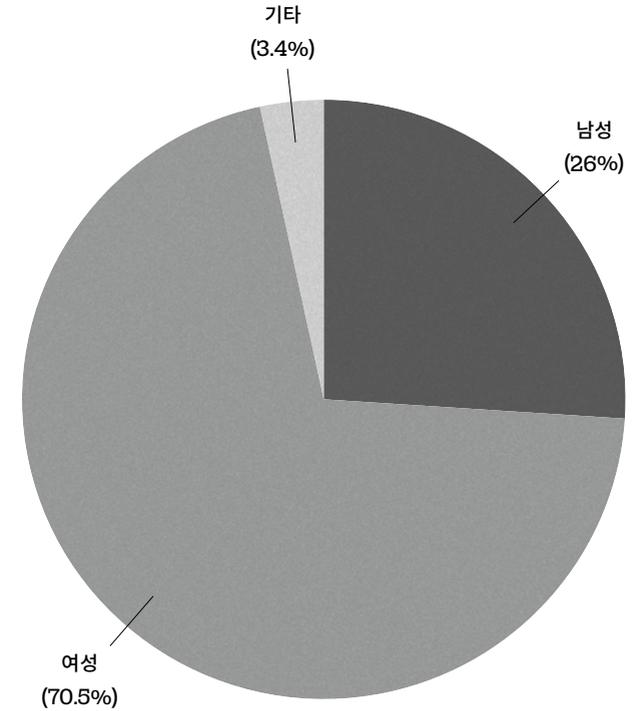


그림 2. 사업 선정자 중 설문 조사 응답자 성별 분포

설문 조사 참여 응답자중, [190시간] 선정자의 성별 분포의 여성은 103명(70.5%), 남성이 38명(26%), 그 외의 성(Gender)으로 스스로를 정체화 한 경우는 5명(3.4%)에 해당하였습니다.

(2) 연령대

①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신청자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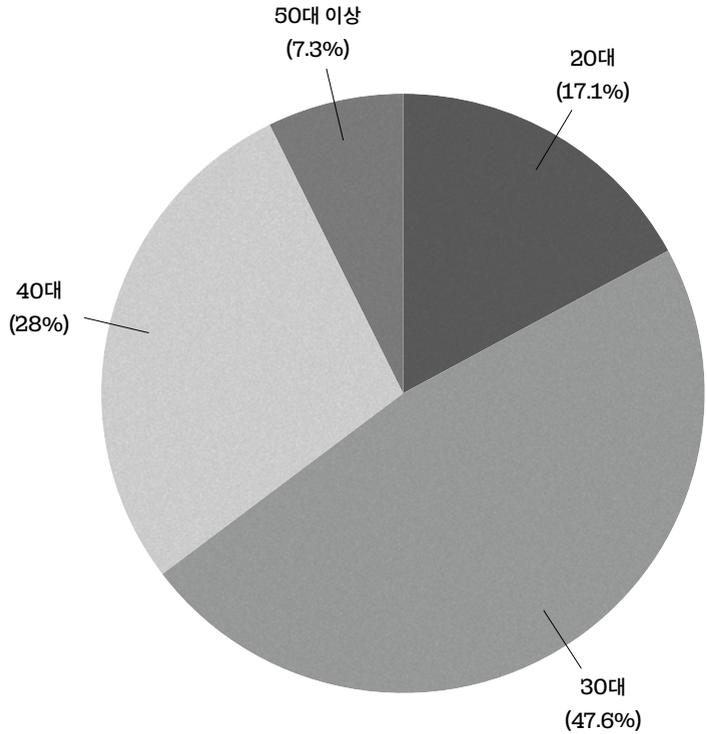


그림 3.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사업 신청자의 연령 분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에 신청자의 연령대는 30대가 136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40대가 80명(28%), 20대가 49명(17.1%), 50대 이상이 21명(7.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에서 사업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37.4세였습니다.

②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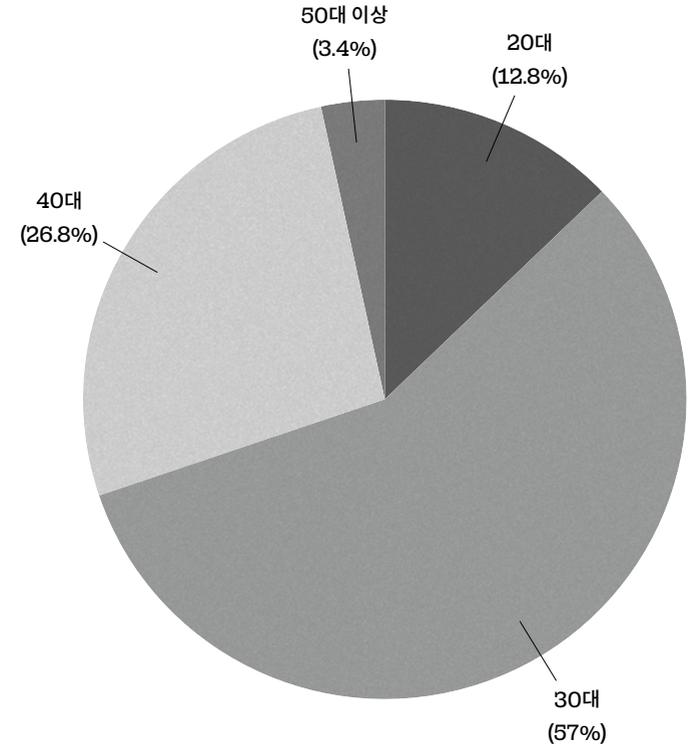


그림 4.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사업 선정자의 연령 분포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연령대는 30대가 85명(5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40대가 40명(26.8%), 20대가 19명(12.8%), 50대 이상이 5명(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선정자 중에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9세였습니다.

(3) 문화 기획 활동 연차

①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신청자의 활동 연차(N: 284/결측값: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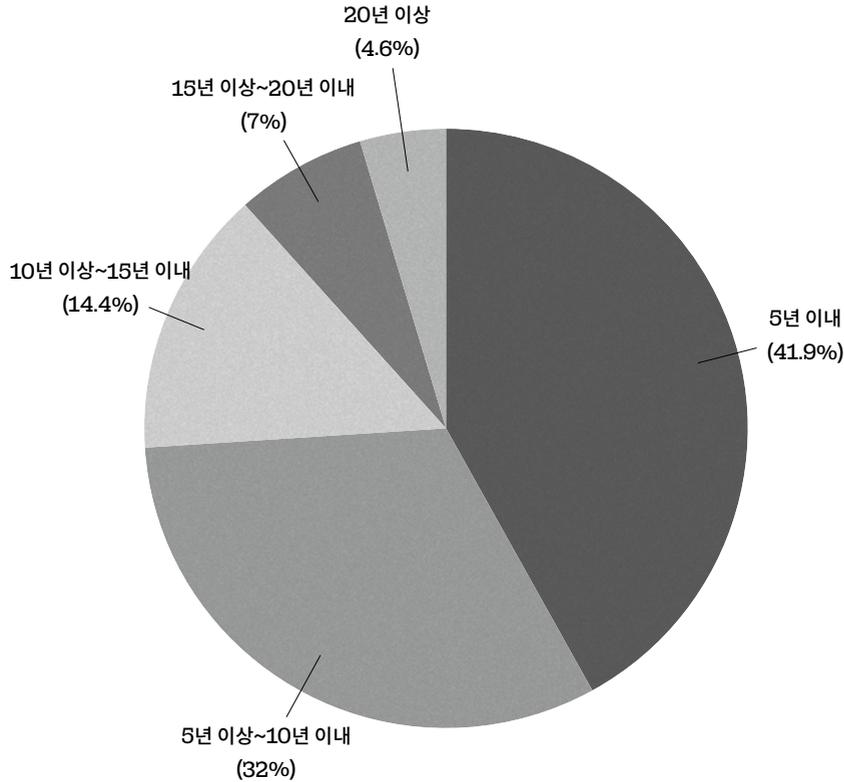


그림 5.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사업 신청자의 활동 연차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신청자의 문화 기획 활동 연차는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119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5년 이상~10년 이내가 91건(32%), 10년 이상~15년 이내가 41건(14.4%), 15년 이상~20년 이내가 20건(7%), 20년 이상이 13건(4.6%)이었습니다. 전체 신청자 중 설문 조사 응답자의 평균적인 활동 연차는 8.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활동 연차(N:149/결측값: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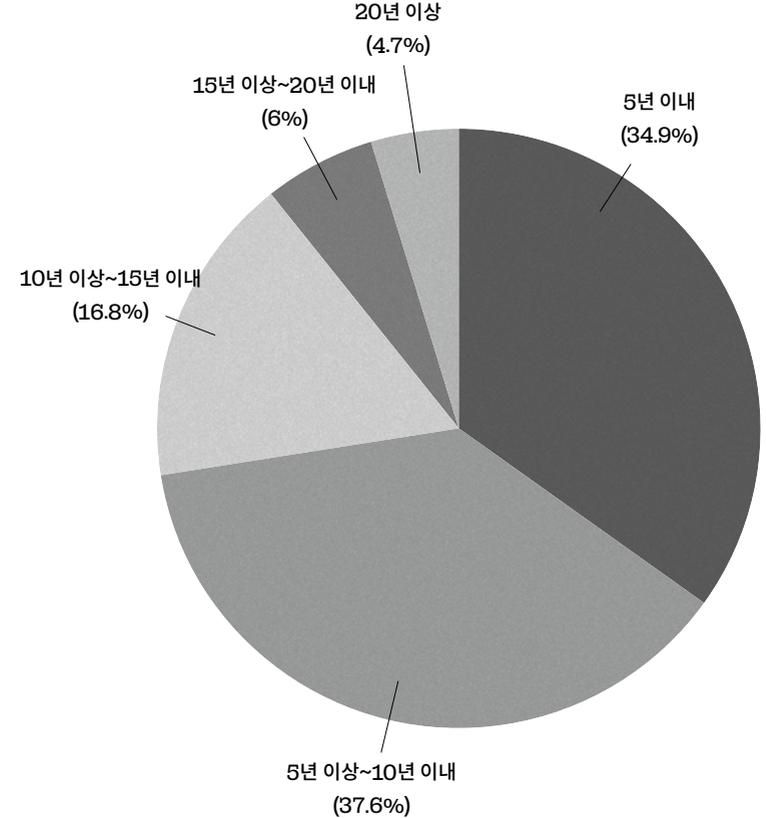


그림 6.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사업 선정자의 활동 연차

전체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문화 기획 활동 연차는 5년 이상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56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5년 이내가 52명(34.9%), 10년 이상~15년 이내가 25명(16.8%), 15년 이상~20년 이내가 9명(6%), 20년 이상이 7명(4.7%)이었습니다. 전체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평균 활동 연차는 9.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두 표를 통해, [190시간] 사업의 참여자(신청자, 선정자 모두)의 평균 활동 연차는 '8년 이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 신진 기획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현장의 피해가 전반적으로 심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활동 형태

- ①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신청자의 기획 활동 형태(N:286/결측값: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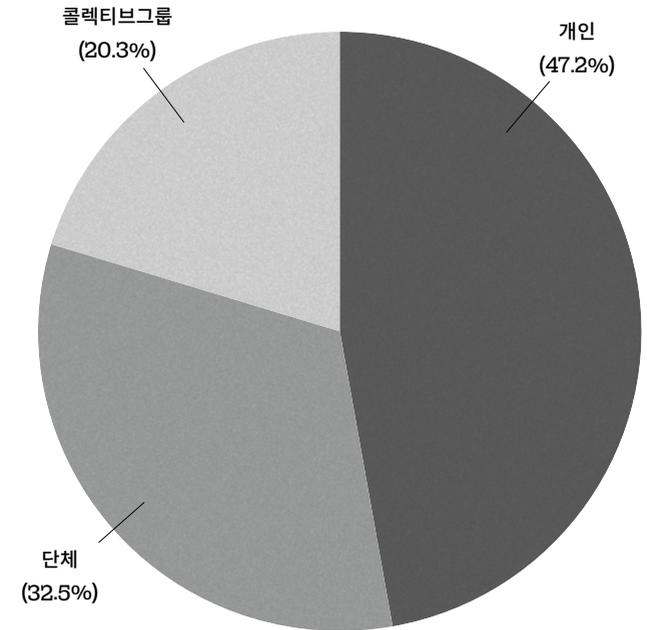


그림 7.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사업 신청자의 기획 활동 형태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의 신청자의 기획 활동의 형태는 개인이 135건 (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는 93건(32.5%), 컬렉티브 그룹은 58건(20.3%)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기획 활동 형태(N:149/결측값: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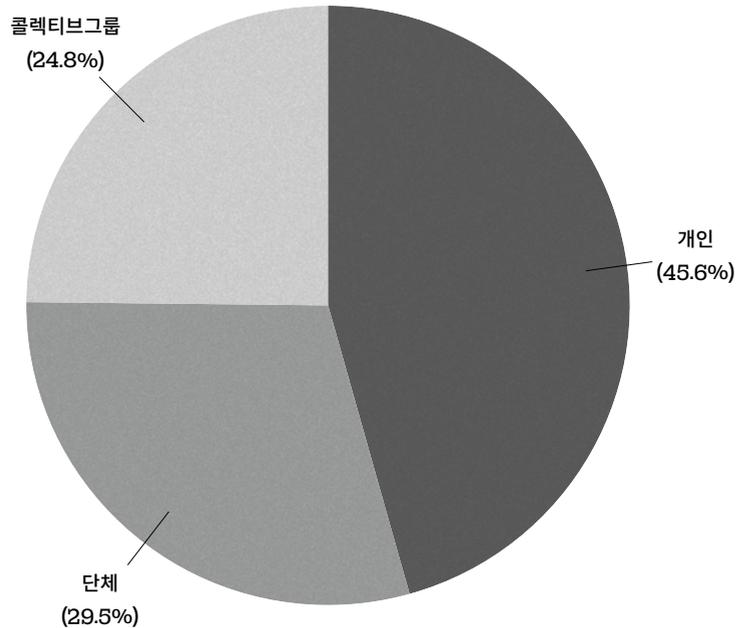


그림 8.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선정자의 기획 활동의 형태

설문 조사 응답자 중, [190시간] 사업 선정자의 기획 활동 형태는 개인이 68건(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는 44건(29.5%), 컬렉티브 그룹은 37건(24.8%)으로 나타났습니다.

(5) 기획 활동 외 생계를 목적으로 한 노동 종사 여부

① 설문 조사 응답자(전체)의 기획 활동 외 생계노동
여부(N:286/결측값: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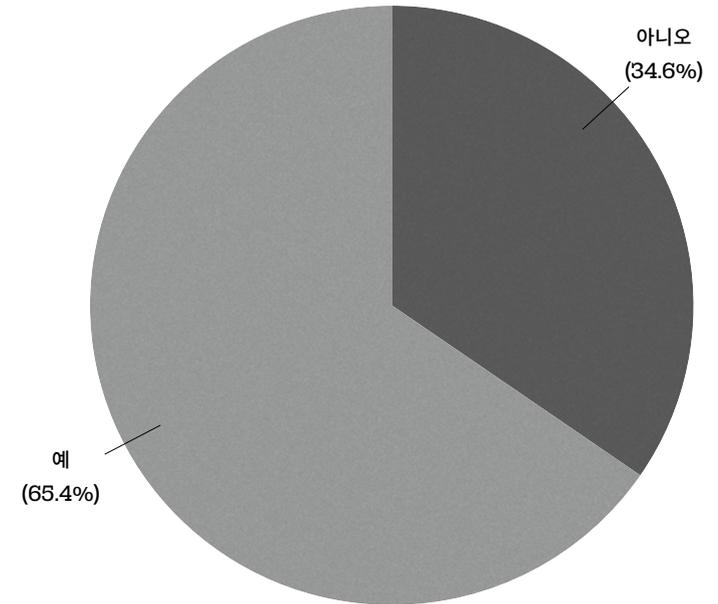


그림 9. 설문 조사 응답자(전체)의 기획 활동 외 생계노동 여부

설문 조사 응답자 중에서 187명(65.4%)은 기획 활동 외에도 생계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의 생계 노동의 세부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가 140명(74.9%)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계약직 등) 노동자가 30명(16%), 자영업이 8명(4.3%), 정규직(상용직 노동자 등)이 9명(4.8%)으로 나타났습니다.

(6) [190시간] 사업 기획자가 연간 기획하는 프로젝트의 수

- ① [190시간] 사업 참여자 중 설문 조사 응답한 기획자의 연간 기획 프로젝트의 수
(N: 280/결측값: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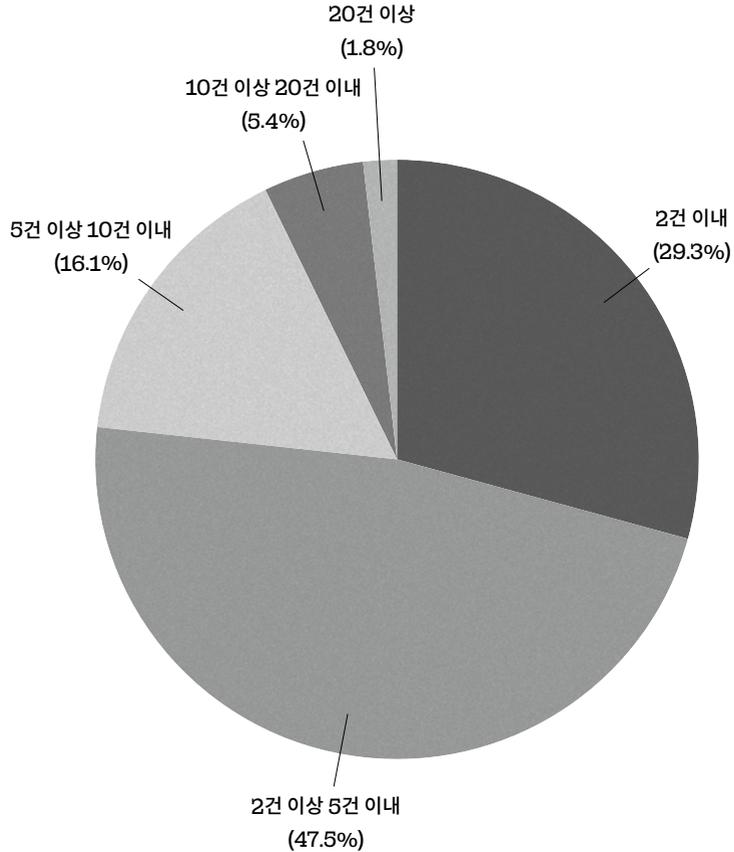


그림 10. 설문조사 응답자 중, 사업 선정자의 연간 기획 프로젝트의 수

설문 조사에 응답한 [190시간] 참여 기획자가, 연간 기획하는 프로젝트의 수는 평균 5.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연간 2건 이상 5건 이내인 기획자는 133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간 2건 이내가 82명(29.3%), 5건 이상 10건 이내가 45명(16.1%), 10건 이상 20건 이내가 15명(5.4%), 20건 이상이 5명(1.8%)이었습니다.

(7) 설문 조사 응답자의 사업인지 경로

- ① [190시간] 사업 참여자 중 설문 조사 응답자가 해당 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로
(N:286/결측값: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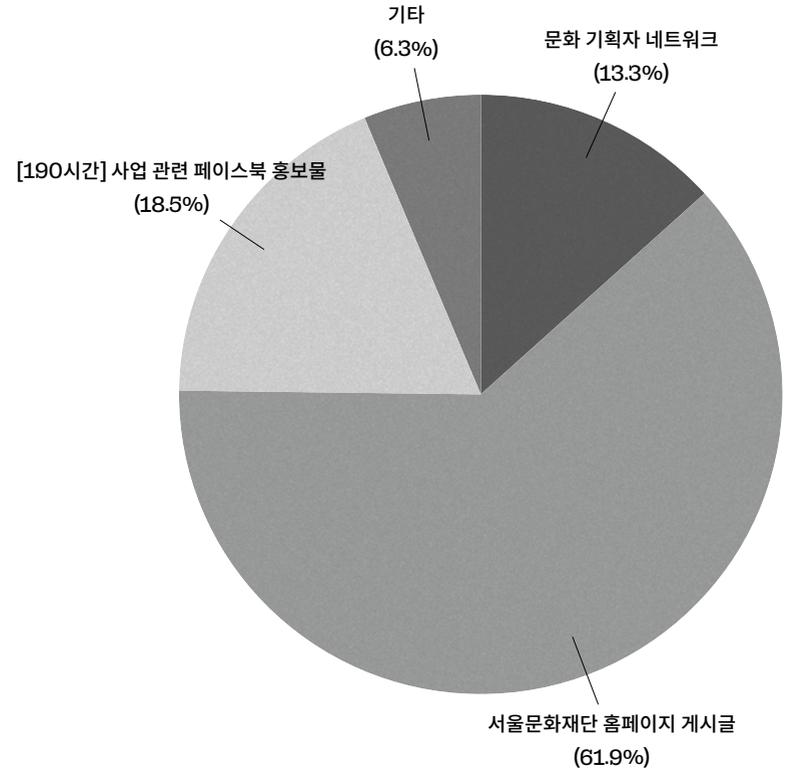


그림 11. 설문조사 응답자 중, 사업 선정자가 해당 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로

[190사업] 사업 참여자 중, 설문 조사에 응답자 286명 중, 177명(61.9%)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통해 190시간 사업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90시간] 사업 관련 페이스북 홍보물'을 통해 사업을 인지한 응답자가 53명(18.5%), 문화 기획자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응답자는 38명(13.3%)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자의 일 - 고주영

지원사업 정보에 빠삭하지 못한, 태만한 독립기획자인 나는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심의를 위해 지원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기획자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처음이지 않나?'였다. 다양한 지원사업에 '기획자'로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기획 과정'만 지원하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기획자'로 한정하는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드디어 '기획'이라는 일과 '기획자'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느낌이라랄까. 물론, '기획'의 일은 단지 기획자뿐 아니라 창작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작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작품을 만들어 대중에게 선보이는 모든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는 창작자는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럼에도 무언가를 전제로 한 기획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의 시작점으로서의 기획 과정 자체가 그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좀 호들갑일까.

그리고 밤을 지새가며 수많은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밤을 밝혀가며 지원서를 작성했을 기획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기획자' 대상이라는 반갑지만 낮은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을 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불처럼 번져가던 때에 결코 많지 않은 지원금을 위해 여전히 문화예술을 고민하고 무언가를 기획해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지원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유롭게'가 강조되는 작은 금액의 지원사업임에도 규모와 완성도, 결과물까지 고민하고, 1년을 꼬박 들여도 실현할 수 있을까 말까한 기획을

이동조차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 190시간 안에 해내겠다고, 가슴 속 우려는 못 본 척 하고, 자신감을 앞세워야 하는 우리의 '고질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카드뉴스를 통해, 혹은 주변 지인을 통해, SNS를 통해 각자가 190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듣거나 지켜보았다. 깊이 침잠하여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도 있고, 그간 숨 가쁘게 달리느라 멈춰서 돌아본 적 없었던 그간의 활동을 일단락지어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을 때 진행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를 갈고 닦은 사람도 있고,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일상을 가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애초에 지원사업의 목적이 그러했듯, 무엇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문화/예술의 손이 묶였던 6개월 이상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190시간, 약 8일만이라도 그저 절망으로만 무기력함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90시간, 그리고 반 년이라는 미증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갖게 된 질문, 성찰은 남아 있을 것이고, 숙성될 것이고,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 던져질 것이다. 그것이 기획자의 일이니까.

190시간은 안녕했나요?

재난을 견디는 시간에서 체화하는 시간으로 - 김미소

인간의 힘을 넘어선 전 지구적 감염이 우리를 찾아온 지도 어느덧 8개월이 흘렀습니다. 축제 기획자인 저는 그 사이 축제를 한 차례 연기하고, 6월 22일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190시간은 안녕했나요?

지난 4월,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한 차례 집단감염의 공포가 휩쓸고 간 시점에 문화예술 '기획자'를 위한 긴급지원이라는 점이 몹시 반가웠고, 기획자 버전의 홈 레지던시 '190시간'이라는 방향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랐던가요. 기획자 중심의 '실험'과 '탐구'의 시간일요. 지출 정산도 '생략'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는 '증빙'일요. 창작 지원 개선과 관련한 무수한 공론화의 시간이 재난 앞에서 '톡'하고 기지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 '기획자'가 되면서 가장 갈급했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생계형 기획자로 이리저리 돈을 버는 일, 나를 알릴 일에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마음을 힘껏 쓰지 못하는 것이 늘 괴로웠습니다. 각종 공고가 나면 선명한 아이템이 없어도 웬지 써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지원서와 입찰 서류에 글짓기를 뿔낼 때면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제동을 걸며 '멈춤'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서야, 비로소 멈춤을 할 수 있게 된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도 '멈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축제를 취소하고 일주일쯤 되니 미련, 아쉬움, 쓸쓸함이 뒤엉켜 자존감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일 년을 꼬박 준비해

겨우 2박 3일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의 시간으로 견뎌내는 일 년이었습니다. '내가 뭐하고 있나, 그냥 이렇게 취소되면 끝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페스티벌 캔슬드 에디션'을 컨셉으로 잡지,

다큐멘터리, 굿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한 시간 속에서, 내 방식대로의 '축제하기'를 시도하는 중이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과 필름을 만드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더듬으며 깨달은 것은, 그 무엇도 '축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대를 만들고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함께 손잡고 노래하는 일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을까. 나는 그동안 이 일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코로나에 쉽게 내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190시간은 과거를 더듬는 정리의 작업일 수도,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하게 무언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곳으로 성큼성큼 내걸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동료들과 떠오르는 것들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기존의 것들이 유지될 수 없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재난'이라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을 사유하고, 태도를 형성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재난을 경험하며, 재난이 마음속 깊이 스며든 시간은 공연, 전시, 책, 필름, 축제, 기타 등등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괜찮을 거 같은 감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조급하고 덜 불안합니다. 상반기 연습의 시간을 지나, 각자의 '시선'과 '방향'을 발견했으니까요. 우리의 과정이 여기 [190시간]에 고스란히 남았으니까요. 지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본질을 믿고, 서로를 다독이며, 이 시간을 함께 기록해가면 좋겠습니다. 동료, 선배, 후배님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각자의 시간 끝에 기쁘게 다시 만나요.

'나'를 향한 질문을 만드는 시간,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 - 남윤일

지난 4월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심사에 참여했습니다.(사업명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행한 환경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멈춰 있는 상황,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지원사업 기획자나 지원사업 수혜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막연하고 모호한 공백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왜 190시간일까요? 자문해 봤습니다. 지원 설계 시 서울형 생활임금을 고려, 1인 200만 원의 지원금 산출 근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200만 원'이라고 하지 않고 '190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표현되는 '시간예술'이 있듯이,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획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기획'이란 개념으로 치환해 봤습니다. 기획에서 실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간 단위로 측정해 보는 새로운 지원 관점입니다.

또 다른 자문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190시간이라는 제한된 조건을 전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마치 기획자의 실험 같습니다. 기획자가 스스로 독립변인(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과 종속변인(독립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변인)을 설정합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증명의 대상이 '나'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입장에선 새로운 관점을 요구받는 것 같고, 자신의 기획안에 대해 근거 자료와 설득 논리를 갖춰 타당하게 변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 부담됩니다.(이러한 책임감과 압박이 때론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에 부정하지만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이 사업은 결과물로 제3자에게

객관적인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다기보다,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다양한 활동 주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대입하여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축소, 취소 또는 연기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목격합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피로가 쌓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러한 소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인 미래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 재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당면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 '나'를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의 질문으로 공감되고 공유되길 바랍니다. 그 질문이 비록 과거의 향수일 수도 있고, 미래의 가능성 사이의 어느 썸에서 부유하더라도,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원사업 만들기 - 원대로

지원사업에도 완성도의 레벨이 있다. 가장 낮은 레벨의 지원사업은 생색내는 지원사업이다. 이런 지원사업에는 웬만하면 엮이지 않는 것이 좋다. 큰 액수의 지원금에 잠깐 눈이 멀어 신청했다가 생색내고 싶어 하는 지원 기관에 휘둘려 사업도 망하고 사람도 잃기 쉽다. 생색내는 지원사업보다 높은 레벨의 지원사업은 요청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사업의 재원을 대체로 공공에서 가져오다 보니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 지원 기관은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 요청하는 지원사업은 절차가 명확하다. 그래서 생색내는 지원사업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를 하거나 사업을 헤집어놓지 않는다. 지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대상자에게 공공성을 증명할 성과, 정산, 지속성 등을 요청할 뿐이다. 물론 사업의 공공성은 중요하다. 문제는 지원 기관이 요청을 줄여가는 방식에는 게으르고, 요청을 늘려가는 방식에는 쉽게 손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지원사업은 생색내거나 요청하거나, 그 사이 어디쯤 있다. 가장 높은 레벨의 지원사업은 묻지 않는 지원사업이다. 생색내지도 요청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는다. 여기엔 계약서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만이 필요할 뿐이다. 아마 모든 예술가와 기획자가 기대하는 지원사업일 것이다. 현실에서는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고서야 이런 지원사업이 가능할까 싶지만, 190시간은 이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190시간이 탄생한 결정적 계기가 예술과 기획에 대한 지원관점의 전환이라기보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술 현장 때문이지만...

지원사업의 완성도에 따라 가장

낮은 레벨의 생색내는 지원사업, 이보다 높은 레벨이지만 증명해야 하는 요청하는 지원사업, 가장 높은 레벨의 묻지 않는 지원사업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정이 변하지 않는 것도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태도는 의지를 만들고 의지는 실제 변화를 만든다. 생색내는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문만 읽고도 그 속에서 지원기관의 오만함이 드러난다. 요청하는 지원사업도 요청을 늘리려는 지원사업과 요청을 줄이려는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청을 늘리려는 지원사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생각도 안 해보고 싹 다 달라고 한다. 반면 요청을 줄이려는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빠빠한 행정 안에서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예술가나 기획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요청을 한다. 묻지 않는 지원사업은 상대방이 아직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먼저 신뢰하는 것이다. 행정 안에 있지만 '우리는 파트너로 각자의 역할로 함께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애를 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원사업은 결국 태도로 하는 것이다.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는데 마무리로 짧게 이야기하자면 190시간의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많은 지원서를 읽었다. 그건 다시 말해 코로나로 무너진 예술의 자리를 살아내는 수백 명의 예술가와 기획자의 내밀한 고백 또는 회고였다. 그들은 코로나 시대 예술이니 포스트 코로나 예술이니 의미 없는 이름을 붙이고 말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예술가와 기획자들은 질문이 바깥을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예술과 기획은 무엇이었던가. 도대체 예술은 무엇이고 기획은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정면으로 질문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 유다원

흰 여백에 검은 바가 깜빡거립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그 깜빡거림이 마음을 졸이게 만듭니다. 기획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이 깜빡임 앞에 놓입니다. 흰 바탕에 표가 잔뜩 들어가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과정을 보내려는지, 어떤 상상들로 이전과의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등등 구구절절한 설명을 늘어놓는 일들을 생각보다 자주 해냅니다. 늘 증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참 고달픈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에는 이 고된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진정성, 새로운 상상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며 정리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획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늘 너무나 필요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며칠 전 5-6명의 동료와 사업계획서를 같이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 사업의 담당자의 인건비가 4개월로 책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분명 <OOO> 사업은 한 달만 진행되는 것인데 왜 4개월간의 인건비를 책정하느냐는 말에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보다 훨씬 긴 세월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왜 1달 진행을 위해 벌어지는 앞 뒤 별 것과 별 것 아닌 무수한 일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노동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에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을 해내고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무수한 리서치를 하고 공동의 생각들을 조각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다시 고요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글로 옮기고, 한 해 벌어질 무수한 일을 가름하여 일정을 구성하고 숫자에 취약하지만 머리를 부여잡아 예산을 짜내어 지원 기관에 제출하고, 1차, 2차 선정 과정에서 수많은 평가와 때로는 모욕적인 말들도 감내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다시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고서는 본격적으로 예술 현장의 동료들과 새로운 작업을 위한 길고긴 협업 시간을 보냅니다. 화려한 커튼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뜨겁게 함께하고 있음에 벅차하며 미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뒤로 한 채, 마무리를 위해 영수증을 붙이고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동안 예술 현장 곳곳에는 한 장의 글에 다 설명해낼 수도 없는 수많은 비루하고 별것 아닌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자의 190시간을 지원합니다>라는 말에 무수한 지원사업 속에서 살아오며 별다른 감흥을 잃어가고 있었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획자'라는 말을 호명해 준 최초의 지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획자를 양성한다,' '심화 교육한다'는 말들은 난무했지만 보이지 않는 술한 시간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말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차올랐다가 긴급하게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 좋게 이 의미 있는 기록에 한 페이지를 참여하게 되니, 흰 여백에 깜빡이는 검은 바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 한마디가 더 어려운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올해 '안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건네기 어려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시간을 인정받은 설렘도,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고 싶었던 마음도, 현실의 상황들에 맞추어 사그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중요하고 이어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획의 시간'을 지원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포함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획자가 다만 돈을 따오고 예술가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예술 현장의 일원으로서 미세하더라도 차이를 생생해나가는 공동의 작업자로서 인정받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물에 불구한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해봅니다.

부디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 사라지지 않고 길게 존재하고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 임성연

심사하던 4월만 해도 추위만 지난다면, 해외 입국자들이
잘 관리된다면, 대구 신천지만 잠잠해진다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결정을 유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기획자를
위한 '190시간'이라는 개념은 팬데믹 시기에 집 안에서
낭만적인 상상을 하는 시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도 두 번의 큰 '위기'를 직접 겪고 나니
이제야 조금 팬데믹 시기의 문화 기획자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생겼습니다. 이태원 사태가 지나고
휴가철도 지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던
8월, 순천에서 아트페어를 준비하던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
순천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뿐 아니라 모든 식당, 관공서,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아 밥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지자체와 후원사에서 전시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였으나 언제 다시 좋은 시절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계획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축소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진행하되, 만약을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작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예상 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지만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성을 만든 계기가 되었고 온라인 판매 가능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제5회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입니다. 4월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하려는
기본 계획이 수정되어 10월로 연기되며 원래 규모로
개최할지, 온라인으로만 축소할지,
아니면 완전히 취소할지 수십 번 변심한
끝에 결국 10월 자동차 극장과 온라인
극장을 병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 영화제 설립 목적은 울주의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지만 영화 관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외에 암막 텐트를 잔뜩 세우고 자연을 가린 채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행사에서 자연을 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코로나19 덕분에 해소되었습니다. 조금 춥고 불편하고 아침 햇빛에 영화 스크린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자연과 영화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감상하는, 장막을 걷은 한국의 첫 번째 산악영화제를 함께 만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0시간’ 사업 지원서를 쓰던 당시는 모든 것이 상상의 영역 속에 있었지만 이젠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나름 많은 기획자의 실패와 성공의 실체를 공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할 겁니다. 시기를 연기한다고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축소한다고 안전하지 않았습니니다.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했고, 어떤 것은 포기할 때 비로소 근본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 끝 바로 앞에 벌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너무 긍정적으로 극복하지도 말고 온라인 뒤로 숨어버리지도 않는 그 중간 어딘가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방역 당국도 아닌 문화 기획자가 꼭 이 상황을 극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190 HOURS

6월 - 기획자의 190시간

[190시간]의 '시간'이라는 척도로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기획자들이 다소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활동의 그 중간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획 활동을 위한 기획자의 역량 강화가 '일상'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획자들이 기억하는 시간들 - FGI 기록

A 사실은 190시간을 쓴다고 하기는 했지만 설마 190시간을 다 쓸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고민해야 되는 것들, 저는 혼자 하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은 200시간이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C 결과보고서 쓸 때... 그래서 저는 조금 190시간이 무척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획 부분으로 선택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190시간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뭔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과보고서 쓸 때 정말 더.

I 이거 처음에 기획서 낼 때도 190시간 기획서를
무척 야심차게 썼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동시대에 영화관과 미술관의 동시에 상영되는
작품들의 경향성을 싹 정리해야겠다 이런 주제를 낸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190시간에
'20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간 기획자의 활동에 대한 보장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의 지원에서 오는 새로운 혼란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획자가 기획 활동과 기획 업무
강도 등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 이들이
자신의 활동비를 그 동안의 지원사업 체계 내에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0시간, 혹은 지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E 그때 그 시기가 보릿고개를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1~3월까지. 저희 공간이 어쨌든
○○에 있고 한 달에 ○○○만 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그 돈을 모아서 내고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더 좋은 상황일 리가 없잖아요. 다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이예요. (...) 이 달 치는 내가 낸다. 너희들 그 돈
생활비로 써라 하고 저는 ○○○만 원 내고.

C 인터뷰를 한 4, 5번 했는데 만나서
지출비로 사용하고 또 응해줘서 고맙다고
또 사실은 그 만났던 작가님들이 다
○○를 거치고 있는 분들이셔서... 만날 때 ○○을

선물한다거나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사용했던 것 같아요.

B 대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썼고, 그래도 책 몇 권을 좀 더 마음
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기뻐고요. 저축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 처음엔, 사실 좀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역할이
정해졌을 때, 창작자는 아니니까 일단 50 대 50으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은 나한테 좀 더 집중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나머지는 약간 다른 작가들에게 좀 더, 뭐라고
하지 제 고집이나 그런 걸 내려놓고 약간 그쪽 선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90시간]의 지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인터뷰 사례비로 쓰이기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예술가의 창작 지원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계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기획자의 '일상'
그리고 '시간'을 지원하고자 했던 [190시간] 사업의 효과가
발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기획자들 혹은
예술가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몇몇의 경우는, '개인의 활동비'가
아닌, 기획자 주변의 취약한 생태계 내에서도 취약한 '기획자 집단
전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190시간] 활동 신청서의 작성 과정은 어떻게 기억되었는가

D 진짜로 다른 기획서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겠다 해서
썼는데 막상 이 기획서가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질문이 몇 가지 안 되었지만 내가 기획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말 과거 이력과 자료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어야 됐었고요.

B 190시간 이후에 나에게 남겨진 것들에 대해 쓰도록 했었잖아요. 기획자들의 에세이라고 봐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늘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처럼, A가 있었으면 A+가 나와야 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기획자의 어떤 생각의 루트나 생각의 확장이나 혹은 그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포함할 수 있었어요.

D 기획자로서의 콘텐츠로 연관되는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썼지만 그건 오히려 실제로는 좀 즐겼고, 그냥 기획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이것을 정말로 왜 원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과정이나 다른 콘텐츠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그 이유를 좀 찾는 시간? 그러면 조금 이후의 방향이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A 저는 스스로, 제 정체성 중의 일부를 기획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외부에 기획자라고 소개하는 자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획자를 위한 사업인 '190시간'에 대한 기획서를 쓰고 정리하면서, 스스로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90시간] 사업은, 지원 신청서의 질문들을 통하여 기획자 스스로가 기획 활동을 재검토하고, 본인 스스로를 '기획자', '문화예술 기획자' 등으로 정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190 HOURS

기획자들의 이야기 - 190시간 편

상태 오류 드러내기 - 강정아

코로나19를 시작으로 2020년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각종 사회, 정치적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상식과 인문이라 믿어온 것들은 살갓의 폭력 앞에서 연약하게 쓰러졌습니다. 말과 말이 쏟아진 시간 앞에 피로감은 높아갔으며, 혐오와 폭력이 제 방 문 앞까지 도사리니 우리가 비껴온 '非역사'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연작으로 작업한 '비틀년' 프로젝트는 여성에게 부과된 '년'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출판, 시각 매체를 기반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틀년 프로젝트 [십할년]은 여성의 생식기를 비하하는 준말인 '씹'이 부스럼 난다의 욕설로 사용되는 '십창'을 해체하는 작업이며 비속어와 방언, 욕설로 존재하는 여성의 위치를 탈피하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작업을 기반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재난사회에 위치한 배제된 신체로, 성인지, 성오염 된 존재로 대상화되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 여성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누드사진을 요구한다는 기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거 실직난, 집단감염 장애인에게 가혹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의 사례를 읽으면서 섹슈얼리티 몸의 위치와 공식 영역 바깥의 '신체'가 어떻게 배제되고 작동되는가를 연결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현실 세계에서 본다는 '전시'를 넘는다 것은 무엇인지, 작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고, 일시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닌,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을 엮어갈 매개체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글보다 그간의 심상과 생각, 단상이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웹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대면의 즉각적인 대응 방법보다 목소리를 담아내고 확대하는 구조로 활용하고자 했고, 전시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삼았던 <OO되기>의 개념과 언어의 한계점을 찾아보면서 당사자와 현실로 대입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을 시각예술가, 활동가, 연구자의 이야기로 웹진<Echo>를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무엇을 단정 짓기도 힘든 요즘이지만, 코로나, 그리고 190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과 문화예술의 가치와 일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독려해준 시간이었습니다. 190시간에서 [담론] 파트를 선택한 이유 또한, 작업적 맥락과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설정한 '담론'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이행하고 담론의 질서와 규칙을 생성하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담론을 말하고 설정한다는 것 또한 텍스트개념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저는 균열을 드러내고 확장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예술가, 기획자, 창작자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역할에 대해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겐 이 시간은 직업적-윤리의식을 갖게 해주었고 '업'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술가나 기획자가 꼭 사회적 가치를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현존함을 인정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작업자-기획자로 현장의 동료들과

연결하는 매개, 관객과 대중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자,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자청했고 이것이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 시기를 함께 향해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지속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서울을 걷는 기획자의 시간 - 구선아

기획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획자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에 없는 시간으로 보였을까요? 싸구려 값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것이 기획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봄, 저는 190시간을 얻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시간을 돈으로 판 것입니다. 실제 기획의 결과를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궁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숨은 이야기를 찾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멀리 떠나야만 여행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 친구가 사는 동네에서도 새로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인 동네지만, 누군가에겐 소설 속의 가보고 싶었던 동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스케치북에 담아보고 싶은 동네일 수도, 또 누군가에겐 좋아하는 단골 가게가 있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을 서울을 그린 소설, 수필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소설과 수필 총 25편을 수집하고 읽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던 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에서 찾아 읽거나 종이책을 도서관과 서점에서 구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소에 대한 이야기 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시 열한 편도 포함했으나 시의 경우 장소성이 은유적, 상징적인 작품이 많아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신동엽의 「종로5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등은 저의

의도에 적합한 작품이었습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이 끝난 후에는 많은 근대 소설, 수필에 등장하는 서울역 - 명동 - 광화문 - 종로 - 청계천 -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기차역, 백화점, 전차 등 신문물이 밀집해 있던 장소라 근대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천변 풍경(박태원)」, 「날개(이상)」, 「전차 구경(하근찬)」 등에서 등장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 동선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읽고 구보가 걸었던 동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반나절을 걷고 난 서울의 모습과 감상을 쓴 수필과 지도를 독립출판물로 발행(2019. 6.)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190시간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소설과 수필 속 서울의 장소를 발견하여 나누고 싶은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190시간을 마치면서 열 장의 기획안을 써보았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모를 기획안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기획안 속 지도를 따라 서울을 담은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곳들을 함께 걸어볼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문학적 가치와 장소적 가치가 맞닿는 날 말입니다.

지난 봄과 여름, 기획자로서 작가로서 고민했습니다. 그 경계에서 막연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190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간은 다시 191시간부터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기획자의 시간은 이제 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를 꿈꿨던 190시간 - 김유빈

기획의 시간

처음 전시 기획을 의뢰받았던 때에는 '기획'이란 단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획이란 특별하다기보다 필수불가결한 무언가에 가깝다고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 겪게 되는 고민의 시간, 그 고민을 동료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거쳐 기어코 내보인 것을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성찰과 보람으로 다음을 향해 내딛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기획이라는 이름 안에 오롯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한걸음 한 걸음을 이끌게 하는 힘과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말이죠. 존재하는 대부분이 그렇듯 단편적인 한순간만을 마주치는 한계 속에서 기획의 시간은 감춰지거나 부풀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씩 무형의 시간, 과정 그 자체가 존중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가지고 있는, 가져갈 사람들의 기대와 비판적 태도도 함께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기획의 시간을 거쳐 여전히 반짝이는 것들이 언젠가는 살며시 남겨질 것을 꿈꿉니다.

장소, 비특정적 예술

이번 190시간을 신청하며 계획서 상 주요 활동 장소를 적긴 했지만 사실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이동하는 열차 속에서 생각의 물꼬가 터지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지원사업의 시작점이었을 수 있는 전염병의 일상 속에서 만남의 장소는 더더욱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활동 유형을 '공동체 연구'로 설정한 것은 그야말로 난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획의 생리(生理)인데, 이제 생태계에 변화가 나타났으니 생존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소통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오고 가는 정보의 매핑(mapping)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지언정 개방적인 만남 속에서 다시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작은 폭발들을 기대하며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공동체라는 저의 연구 주제는 그래서 이번 190시간으로 한정되진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가올 내일의 동료들과 이 주제를 꾸준히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때 줄줄이 떨어오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스(Communitas), 커뮤니티(Community), 커먼즈(Commons) 등 개념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것들, 수많은 논쟁거리와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들 모두를 말입니다. 특히 제게 중요한 것은 이 주제를 통해 여태껏 의심 없이 행해진 것처럼 특정한 방향과 선언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이게도 그 시작은 제안으로부터의 폭발, 즉 내파(implosion)를 위함이고,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번역(브뤼노 라투르가 말하는) 속에서 여러 내파와의 마주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유예된 시간을 붙잡고 각인하기 – 임가영

연초 전시를 준비하면서, 도록에 수록될 서면 인터뷰에서 '노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단위 시간의 운용 방식을 결정짓는 활동"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작업과 노동 사이의 경계는 언제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노동'은 시간의 가치를 분할하는 뚜렷한 기준(시급, 마감일, 지급일, 휴가 등)이 설정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제가 맡는 일감들은 실로 다양하고, 그 일들에 대한 보상과 노동 조건 역시 상이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즈음부터, 제가 걸치고 있던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평소와는 다르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지연과 취소로 제 캘린더에는 공백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위협해진 것은 생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인 일감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형성되어가던 저의 노동자·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무력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비대면 및 자가격리로 변화된 조건 속에서도 루틴을 잃지 말고 평소의 일상을 지켜나가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190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줌(Zoom)을 통해 팀원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작업에 참고가 될 작품들을 보고, 기획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마주해 행한 이례적인 실험이 아닌, 정말로 저의 일상을 지속해나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모임이나 행사가 계속해서 취소되어,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이 될 만한 지점이 자꾸만 흩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고립감 역시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놓여 있을 기회를 잃어가니, 작업에 임하는 제 태도의 '각' 역시 흐트러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곤란했던 점은 모든 사람이 원래의 마감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 클라이언트,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모두 일정의 지연과 취소의 어떤 연쇄적 고리 속에 놓여 있는 듯이 마감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감안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하나의 일을 마무리했을 때에만 내릴 수 있는 평가 및 피드백의 부재는 무척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마침표로 닫혀 있지 못하고 말줄임표로 흩어져가는 문장들로 가득 찬 듯한 나날들 속에서 일상을 지켜나가려면, 나름의 '단위 시간'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190'시간이라는 단위는 외부의 재난으로 지연된, 유예된 시간을 붙잡고 각인하려는 노력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이 노력은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지속해온, 프리랜서 노동자·예술인의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노동과 고용 형식을 어떻게든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러모으는 작업과 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활동에는 예상치 못했던 복잡다단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활동은 이전과는 다른 '시간'의 경험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어 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숨 가쁘게 달리는 급박한 템포에 익숙해졌을 때 갑작스레 도래한 (어쩔 수 없는) 지연과 유예 속에서, 단지 주저앉는 게 아닌 또 다른 '시간의 서사'를 궁리해 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활동과 190시간 사업 기간에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일 듯합니다.

190 HOURS

포스트 코로나

190 HOURS

7월 - 코로나가 바꾼 기획자,
기획자가 바꾼 코로나

코로나19의 유행과 이에 따른 전국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의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예술가들은 실연과 창작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는 문화예술계 내 기획자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였습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는 해당 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추가 편성되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기”라고 언급했으며, 이때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적으로 예술가들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아온 ‘기획자’ 집단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지원사업의 기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획 노동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적당한 보수를 책정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를 인지했던 시간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공연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런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기획자잖아요. 예술가들은 그게 완성돼야 올라오는 사람들이고 저는 사실 일이 공연이 없다 뿐이지 서류는 하루에 거의 몇십 개씩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

일은 ○○ 씨랑 제가 다 하는데 왜 저희 기획자의 기획비는 대부분 축정을 하지 못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 활동’이 전문성을 토대로 한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며, 이처럼 ‘문화예술기획 현장의 사각지대’는, 기획자의 실천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문화예술지원 체계 내에서 기획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양적 불충분함, 더 나아가 기획자의 ‘기획비’ 산정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구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예술가들이 저를 원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돕는 입장이었고,

제가 필요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기획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문화예술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양적 불충분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내에 기획 활동과 관련한 전문 기관이 부재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체계의 조건은 문화예술 기획자가 예술장 내에서 ‘어디에 끼기도 애매한’ 정체성의 상황을 공명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은 예술 장르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분야들마다 스튜디오나 접촉할 수 있는 무척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해 준다거나, 작업 환경에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획자들은 되게 잡다하잖아요.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끼기에 애매한 입장이 아닌가.”

문화 예술 기획자를 위한 지원사업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 대상으로서 ‘기획자’를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면접참여자들의 관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더욱 좁은 방식으로 문화 기획자를 정의하는 관점과 더욱 포괄적인 방식으로 문화 기획자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원사업들의 경우, 큰 단위에서 점점 쪼개져서 이제 작은 단위의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팀 단위가 아니라 개인들이 계속 지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짜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들어요. 오히려 기획자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다른 분들이 지원서를

쓰지 않더라도 기획자가 따온 지원금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예술 기획자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는 문화 기획 활동을 병행하는 예술가 혹은 문화예술 현장 내의 구성원을 기획자 지원사업이 상정하는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혹은 문화 기획 활동만을 '전업'으로 삼은 기획자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것인가라는 사안과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화 예술 기획이라는 영역의 범주를 얼마나 엄격하게 정의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사람마다 혹은 접근하는 방법마다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고 느슨하게 보는 사람인 것 같고요.”

지원사업 내에서 문화예술 기획자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문화예술 기획 활동의 '전문성'이 문화 정책 현장의 현재의 조건을 반영하고, 동시에 '전문성'을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자들은 [190시간] 사업의 메시지와 담당자들의 태도 등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수행해온 작업에 대한 존중과, 노동으로서의 '기획'에 대한 존중, '기획자' 정체성에 대한 존중도 함께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현장에는 존재했지만, 정책적으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0시간] 사업을 통하여 '기획' 혹은 '기획자'가 공공의 지원 대상으로 비로소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정책 내에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드러날 수 없었던 기획자들의 자기 인식이 [190시간]이라는 사업과 이로 인한 정책적인 인정을 통하여 정체성이 거듭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 HOURS

8월 - 190시간 지원사업이 남긴 과제들

**190시간 지원사업이 남긴 과제들 -
외부 전문가 및 현장 당사자 좌담회**

대담자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 대표
	성연주 문화사회학 연구자,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주승리 허스토리 기획자, 책방달리봄 운영진
	이성휘 190시간 지원사업 기획홍보 pm (하이픈엘와이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진행·정리	채태준 190시간 지원사업 평가연구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송효원 190시간 지원사업 평가연구팀 (청년오픈플랫폼 Y 대표)

**생태계가 아예 달라지다 보니까
흔재되는 시간이 무척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태준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은, 190시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발생 이후에 수립된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의 문화생태계의 조건에 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두 분께서는 현장의 당사자로서 문화기획활동을 하고 계신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박도빈 선생님이 사업 기획되는 데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생태계 내에서 문화기획자들이 어떤 취약함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도빈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온다고 생각했으면 좀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었고 지금 버티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서울시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²⁾이 나오면서 기존의 공모방식이 아니라 긴급하게, 정산이나 이런 거 빼고 지금 버틸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획자가 기획비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있긴 한데, 기획비라는 기준이 없고 아티스트 피처링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 무슨 기준으로 기획자의 인건비를 책정할 거냐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기획자가 자기 기획을 위해서 고민했을 때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냐고 봤을 때 2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한 달 정도는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앞으로를 준비하던 그동안 했던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등의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2) 서울시,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 [청년청] 코로나19 대응 시리즈 <재난 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고, 8월에는 사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보다 장기적이거나 규모가 큰 지원이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채태준 주승리 선생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주승리 저희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타격이 컸죠.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바뀌어야 하는 현실에 마주치다 보니 그때 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오프라인
모임들을 위주로 했었고, 사실 문화행사가 오프라인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빨리 지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진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도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영상 콘텐츠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가 예전보다
더 호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하지만
기획자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생태계가 아예 달라지다 보니까 혼재되는 시간들이 무척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 지금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온라인/비대면에 적응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때는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저도 이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다른 분에게 추천을 했었는데,
이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었고 돈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달의 여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길어질지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끊기면 또 막막해지는 성격이 큰 것
같아요. 지원사업의 부분들이 있지만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태준 어떤 사람이 [190시간]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주승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술가분들도 그렇고. 사실 예술가분들도
기획 일을 하시잖아요. 자기 작품, 자기의

예술을 보여주는 일이 기획인 건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전시라던가 행사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획자라고, 기획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지원하신 분들 중에 예술가분도 많았을
텐데.

박도빈 맞아요. 되게 많았고. 심의하고 나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획자의 개념이나 범주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지원하신
분들도 다르고, 기획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것의 범위도
모두 다르고, 심의도 여러 명이 했었는데, 심의위원들도 모든 기준을
다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깐. 어떤 분이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이죠. 나이대도 달랐었고, 경력도 달랐고요. 저도 심의에
참여했었는데, 지원자들 중에는 뉴욕에서 뮤지컬을 올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지원하신 분부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각예술 작업을 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의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심의 기준을 아무리 세세하게 마련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획의 완성도를 볼 수도 없고 기획서를
완성도 있게 잘 쓴 걸로 하다 보면, 사실은 기획서를 잘 쓴 사람이,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또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번 190시간에는 기획서를 써보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190시간에는
중요면서도 슬픈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태준 당시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계 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의 단상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연주 저는 이때 마침,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운영하면서
심의에 참여한 이야기도 듣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제일 신선하게
느꼈던 것은, 서울문화재단이 기획자들을 호명하는
사업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에는
기획자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기획자를 교육하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 센터 혹은 아카데미에서, 기획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주로 인식되기도 했었는데, 기획자 자체가 주요 지원 대상으로 지원 받는 게 신선했구요.

저는 [190시간]이라는 사업이 좋으면서도 슬픈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들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기획자분들 만나면 다들 '남는 것이 시간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원래 되게 바빴던 기획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190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은 시간으로 느껴지다 보니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대충 제목을 보면 구호 목적의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를린에서 미술사 공부하는 제 친구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여기의 지원을 받은 줄 몰랐는데, 계속 학문을 하던 친구가, 제 입장에서는 연구자였던 친구가 갑자기 기획자가 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획한 사업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190시간] 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인 걸 알고서는, '이게 200만 원으로 되나? 이걸 한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훨씬 넘는 사업인데... 이게 200만 원 아닌데...'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에서 이 사업을 받은 기획자들이 모두 "이 사업이 무척 좋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담당자의 소통 방식이 남다르다는 말도 했고요. 너는 계약서 상에서 갑이고 을이다가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마음으로 챙긴다는게 느껴지고 이 사업은 남다르다고 하는 말을 모든 기획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냥 보면 구호사업 같기도 하고. '200만 원'은 너무 작은 돈이고, 어쩌면 기획 활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건 무엇에서부터 가능할까? 역으로 그런 게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박도빈 공모를 기획하는 단계의 자문회의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든지 다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언어와 다른 태도로 메시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고, 예정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나,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정대로 잘 지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도 되는 거거든요. 후속 과정을 더 이어갈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챙기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했던 행정의 언어나 담당자의 태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심의하셨던 분들이 모두 심의평 작성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1,447건이나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230명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제안서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었지, 기획자들의 기획이 부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 하나가 모여서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연주 제일 중요한 선발의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휘 '기획자의 기획 역량'과 '190시간의 활동 내용', 2개 지표를 50대 50으로 봤었는데, 정말 둘 다 무척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각각 50대 50으로 비중이 동일하고, 과거의 활동역량은 범주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둘 다 고민되는 지점이 많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활동할 190시간을 심의하셨을 때에는 '190시간 이상으로 너무 과한 노동'이 들어가는 활동은 지양했었던 방향성이 있었어요.

박도빈 이분이 기획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획서만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정보가 부실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전에 기획자로서 활동한 것을 선정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정보 자체가 없으면 사실은 선정할 수가 없죠. 기획의 경험이 많이 없어도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정성스럽게 담은 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좀 애매했구요. 얘기하신 대로 예산에 비해 엄청 큰 규모를 제안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건데 이런 활동을

준비해볼 거라고 계획한 경우에는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공모사업에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제안한 것 같은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심의위원들도 기존의 공모나, 창작지원 공모사업이랑은 다른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사업을 심의하듯이 심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무척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예술가부터 기획자까지 1부터 10의 스케일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다 치우침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지원사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채태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문화예술 기획자를 뽑아 봤는데, 이 사업에 문화예술 기획자를 호명한 특정한 방식이 있었던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방식으로. 최초 기획 단계에서는 문화예술 기획만 하는 기획자, 장르예술을 병행하는 기획자보다는 기획을 전업으로 하는 기획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상정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실제 사업이 구성되던 과정에서는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현장이 매우 다양하고 기획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 기획자가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한 넓은 방식을 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자 다양하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연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획자가 너무 두드러지는 요새 예술 지원 트렌드가,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실연자처럼, 직접적인 예술가들은 무대에 설 수가 없는데 오히려 무상으로 올리기가 쉬운 것이, 리서치 과정, 아니면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 단계 등은 얼마든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할 수 있지만 무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채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제가 느끼기에는) 기획자들은 정말 예술가만큼의 직격타를 덜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언어들을 개념화하고,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해주는 과정을 기획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마치 그래야만 하고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예술가의 작업이 한편으로는 더 의미 없는 것으로까지 치부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기획자의 작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자칫 예술가의 작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조명 받는 기획 자체가 작품이 되고 기획이 핵심이 되는 기획자 그룹이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기획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에는 큐레이터나, 무대 프로덕션을 할 때 뒤에 붙는 스태프들이 있고, 사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실무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든 업무를 하니깐 일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존재감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대세가 되는 새로운 군의 기획자들의 경우, 기획자의 이름이 전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기획자의 어떤 것이다'라고 드러나다 보니 저는 이런 면에서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의 기획자들도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대를 꾸리려면, 무용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세세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일들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술가부터 기획자까지 1부터 10의 스케일이 있다면,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다 치우침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지원사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태준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했던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선정자 분은, 사실은 글 작업이 익숙치 않은 공연예술 분야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런 거 쓰기 어렵고 선정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논쟁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실무랑 기획, 기획과 실수가 합쳐져서 문화 기획이라고 통칭하게 된 맥락에서 그들의 작업이 명명될 때, 사실은 이런 지원사업에서 속아내지는 문화 기획자들과 그렇지 않은 문화 기획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좋은 단어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이성휘 기획자와 관련하여 성연주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문득 갑자기 떠오른 건, 엔터 산업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듀싱, 작곡을 누가 했는지 일부터 갖다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쪽을 띄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획자의

역할이나 파이가 커지고 있고, 또 그게 중요해지면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에서 이 사업이 레퍼런스가 되어서 아무런 맥락 없이, 정책이 복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됩니다.

페이퍼로만 평가되는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채태준 기획역량이 상징화-자본화되어서 모두가 기획자가 되어야 하고, 마치 창업가 앙트 프레너십처럼, 문화예술 기획자 지원사업이 개설되는 것처럼 예술가도 기획역량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런 식의 개발론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오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성연주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나본 기획자들 중에, 문화예술 씬에 갑자기 들어와서 엄청난 용역을 따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어떻게 가능하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회사를 다녔거나 행정적 업무를 담당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술가들이 못 쓰는 서류를 나는 하루에도 10개씩 쓸 수 있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흔히 이런 게 따라오더라고요. "내 뒤에 나만 믿고 따라올 예술가가 5명 있다. 애들은 내가 얼마를 주더라도 할 애들이야."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런 관점이 무척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문화예술 지원,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 지원 등이 다 섞여 있잖아요. 같은 작업의 틀거리가 예술이었다가, 갑자기 마을의 테마로 재포장되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기획자 밖에 못하니까, 기획자가 그 과정에서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승리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획을 다루는 수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업들이 페이퍼 쓰는 수업들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기획자들 중에서 문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느낌처럼. 물론 지원사업이 나오니까 그걸 따내서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공부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페이퍼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원사업은 페이퍼로만 평가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1차로 걸러질 때는 페이퍼로 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글로만 평가되고 페이퍼로 잘 쓰고,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지원사업을 다 가져가게 되고 지원사업 헛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공기관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아니까. 공공기관, 문화재단, 구청에서 원하는 게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 다녔던 분들은 초점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문서 작성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기획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획들이 정말 실현되었을 때 '이게 왜 나왔지?'라는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문서로만 평가되는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박도빈 개인적으로 다음 단계 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획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화려하게 쓰는 것, 도식화를 시켜서 잘 보이게 쓰는 것이, 기획서를 잘 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려는지부터, 자기 고민이나 자기 철학이나 프로젝트가 할 내용들을 텍스트로 잘 보여주는 건 기획자의 핵심 역량인데, 기획자가 자기 기획을 할 때 자기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술가들처럼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획서 양식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기획서를 쓰는 건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모사업의 문제가 심사의 방식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럼 기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로 가능한 거냐, 다른 심사 방식은 뭐가 있냐?'라고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사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실행 결과와 그 성과를 잘 평가하고 이후 지원 여부에 반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승리 그래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래요. 당연히 기획서 자체가 목적이 되어 기획서를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통할 내용을 자기가 정리해 나가기 위한 기획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기초문화재단 등 여러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기획서 자체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자가 또 지속적으로 인지해야 할 면도 있는 것 같구요. 추후 모니터링이나 평가 과정에서도, 참여하거나 지원받았던 각자의 고민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일시적인 심사위원, 평가위원들이 서류로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나 방법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직접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채태준 [190시간] 사업 참여자를 인터뷰하면서 흥미로웠던 것들 중의 하나가 그전에는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쓰면서 심의위원의 이름을 잘 안 봤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심사할 건지 궁금해서 심의위원 명단을 봤다고 한 점이에요. 심의위원 이름부터 파악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아마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심사하지?', '이 형식을?', '이게 정말 심의가 가능해?'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박도빈 그래서 처음에 추천도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재단에서 못 풀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었죠.

성연주 저는 이 사업이 다른 식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기획자에게 너무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리서치 지원 혹은 기다려주는 시간, 함께 응원하는 시간에 의미를 두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거리예술 분야에서 거의 7~8년 기획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활동 내용을 보니, 거리예술의 담론적 의미화를 탐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보고 반가웠던 점이, 그 전까지 그분을 만난 건 축제에서 뛰어다니고 의자 들고 오고 이런 모습만 몇 년 보다가 그동안에 6~7년간의 작업을 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처음으로 주어졌겠다는 생각을 하니깐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워요. 그런 지점에서는 이 사업의 타겟은 기획자인지 예술가인지 하는 질문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획자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는 정책의 참조점,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채태준 시간이라는 지원의 키워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돌아보는 시간으로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기획 단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상정한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시간도 있을 것인데 각각의 의의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승리 이런 지원사업을 처음 봐서, 기획자의 노동을 인정해주는 지원사업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어도 시간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내라, 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문서당 얼마를 해서 기획자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기획자들의 페이지는 기획서를 내거나 혹은 보고서를 내거나 페이퍼로 보여주었을 때 원고료라는 부분으로 책정되어서 주거나, 명확하게 기획비로는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기준이 들어갔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자체가 저는 무척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뉴딜 일자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임금 측면에서는 나름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기획자에게 적용됐을 때도 좋은 기준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획자의 일하는 시간은 엄청 유동적이고, 190시간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기준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종들에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획자들에게도 일단 시간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성연주 저도 똑같이 시간을 명시해서 노동을 하는 주체라는 걸 드러낸 점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몇 퍼센트까지가 인건비로 가능하다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인력이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박도빈 연구사업처럼 가야죠.

성연주 예. 그게 안 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죠. 어느 기관의 회의에 간 적이 있는데, 담당 직원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제 인건비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서를 받았는데 어디에도 기준이 없어요. 1인당 얼마인지 물었더니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원래 전체 지원사업의 15%가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데 30%로 올렸으니 두 배를 받는다는 논리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 수가 많아지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질 건데,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만약 후속으로 연구된다면, 기획자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는 정책의 시사점, 사회적 공감대가 꼭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박도빈 기획자 전문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회의비나 강사비나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등의 연구 참여 역할과 본인의 연구 실적, 경력에 따라 단가들이 다 있으니까, 이건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연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할지에 대해서 연구비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기획자들이 하는 기획 노동을 책정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동일하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축제 기획에서는, 어느 규모의 축제인지를 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의 시간을 투여해서 이 기획 작업을 하는지까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사실은 최저 수준인 것이죠. 아무리 못해도 내가 세 달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고 한다면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는 기획비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 조건에서부터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채태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가 형식의 간소화, 증빙의 간소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너르게 요청했다는 점이었어요. 이 사업이 비단 개별적인 것으로, 초역사적인 것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문화 정책 지원 체계 안에서 실험적인 케이스들이 쌓여서 나온 결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쓰인 지원 형태, 결과물이 다른 지원사업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거나 달라질지, 그런 점에서 지원사업 체계의 요소로서 '신청', '지원', '선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성연주 간소화하는 것은,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과 비슷한 청년허브의 '청년참'이라는 사업은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것도 지원서가 되게 간소하거든요. 이만큼은 아니지만. 일상 언어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소화되는 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치 200만 원이 적절한 비용인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연구사업과 비교하게 되는데, 저처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1년에 대략 1,200만 원 정도를 중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빙 없고, 결과보고서만 쓰면 끝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가능한데, 지원사업은 왜 안 될까, 정말 장학금처럼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학금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승리 다른 지원사업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출판 지원을 받았는데 선급금을 얼마 주고 결과물을 내면 남은 지원금을 주는 식이었는데 증빙 절차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신기했었고요. 연속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다르겠지만

아름다운가게의 뷰티풀펠로우³⁾는 사회적 기업들의 대표들,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3여 년의 기간에 걸쳐 활동비를 주는 사업인데 이걸 받아서 다른

³⁾ www.beautifulstore.org/beautiful-fellow-history

데에, 술 먹거나 이런 데에 쓸 거 아니냐는 말을 무척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먹고 자는 것도 삶의 일부이고,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 시간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부분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금액들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획자들의 대부분도 거금을 벌겠다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떤 걸 올리고 싶고 하고 싶은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께 여유를 주는 것. 기획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알바를 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더 그런데, 여유 시간, 돈을 만들어주는 것. 사실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계속 말해주셨듯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월 6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게 삶의 여유, 생각들을 바꿔주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만 원도 크긴 한데 오히려 금액을 낮추고 몇 달을 더 지원해주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190시간이라는 시간을 한정해두고 문화 기획자들에게 “너희들의 노동시간도 존중받아야 돼”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어떤 걸 내가 했는지를 말하는 지원사업이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200명밖에 호명이 안 됐는데 이게 쌓이면 400, 600, 800명처럼 사람 수가 쌓이는 거잖아요.

채태준 참여자들을 만나보니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문화 기획자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아주 매끄럽게 자기에게 안착되는 경험을 했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내가 문화 기획자로 10년 만에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 하셨는데 그것이 신기했어요.

주승리 계속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기획자라는 정체성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걸 어디에서도 호명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획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쉽게 바꿔버렸어요. 팀장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단순한 정체성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라서. 사회적으로 호명되지 않는 이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지원사업 기획서의 문화예술 기획자라는 명칭이 애매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명칭이었는데 서류나 재단에서 호명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 나는 문화 기획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왜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코로나 시기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을 해서 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건지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삶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지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에 필요한 자료나 레퍼런스가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개개인들, 참여한 200명의 의견들이 엄청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정책을 만들 때나 지원사업을 할 때,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지원사업을 여러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200명만 호명되었지만, 이게 쌓이면 400, 600, 800명처럼 사람 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양성도 쌓이고 신뢰도가 쌓이는 거니까. 오히려 이 시기니까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추후의 과정에서는 그럼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의 시기를 미리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호명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좀 더 여러 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성희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사회적 호명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대로 ‘기획자들을 왜 지원해야 돼?’라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면, 그 사회적 호명에 따른 경험에 따라서 “해야지”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왜 하면 안 돼?”라며 질문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자의 대부분은 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기획자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호명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음 지원을 할 때 반동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채태준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다음 단계에서 더 고민해야 될 점, 좌담을 나누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도빈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190시간에서의 고민이 기획자를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과도 연결되어서 이번에 했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들에서도 기획자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이 사실 10~15%인데, 이게 기획사들이 용역을 받을 때 회사 이익을 잡던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기인된 거라고 봐요. 연구사업은 연구를 몇 개 하지 않아도 이게 나의 성과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자가 어떻게 기획자로서 전문성을 가지는가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 구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레퍼런스가 목소리나 언어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설정한 것, 이게 내년에 다른 사업을 기획할 때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연주 요즘 아티스트 피가 핫한 이슈인데, 기획자 피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점이, 저는 이 사업이 파급력이 있었던 건 230명이라는 많은 수를 뽑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23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또 200만 원만 주지 않고 누군가에겐 천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되려면, 결국 팀에서 예산을 많이 따셔야...(웃음)

주승리 비슷한 것 같아요. 처우가 바뀌어야지만 사람의 그 자리가 바로 서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자리가 서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기획일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획자 피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 일만 하고 싶기도 하고.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기획자의 전문성도 저절로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른 일도 하면서 이 일도 하는 것이 다 생계형도 있고 재밌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제 자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일거든요.

많은 기획자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이, 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단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솔직히 퀄리티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와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이 지원사업의 후속 과정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 결국 그게 정책으로 연결되려면,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모여야 하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많이 기록해놓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90 HOURS

기획자들의 이야기 - 포스트 코로나 편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 권태현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는 미술관과 극장. 종잡을 수 없는 새로운 감염의 경로들. 아무리 강경하게 해도 구멍이 뚫려버리는 방역 체계. 팬데믹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쯤 학교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취소된 해외 프로젝트들은 과연 재개될 수 있을 것인지. 미술관은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만들어낸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거대한 문제들까지 예측 불가능성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도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병이 어떻게든 세상을 바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는 등 떠밀려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술관과 극장들은 앞다투어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 긴급하게 투입된 공적 기금의 많은 부분이 예술 작업들을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일 뿐일까요? 니키타 잉치안 차이(Nikita Yingqian Cai)는 팬데믹 때문에 시행하게 된 무접촉, 원거리 미술에 대한 경험이 아예 미술 전시의 형식적 전환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진단합니다. 생각해보니 안 그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글로벌 비엔날레에 대한 회의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세계를 불가역적으로 바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체제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한만 살펴봐도 급진적인 구호였던 기본소득을 이제

보수적인 유력 정치인들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재난 기본 소득은 일반 기본소득과 큰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우익 자유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세계의 국가들도 팬데믹을 맞이하여 이례적인 국영화 사업이나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전염병 이후의 세계에는 권위주의적인 것과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역병의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확장되고 있었던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의 사슬이 끊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통망을 잃은 농산물들이 버려지는 광경은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대공황의 장면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단절이 세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팬데믹은 지구 전체가 맞이한 하나의 사건으로 의외의 공통 경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국제 공조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의 경험은 또 하나의 균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인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가 격리를 홈파티의 기회로 생각하는 상류층과 자가 격리할 집이 없는 노숙자들의 경험은 결코 공통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안의 적대가 팬데믹을 통해 극적으로 동시에 드러납니다. 온갖 역설들이,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전복들의 연쇄가 감각됩니다.

재택 근무, 온라인 전시, 온라인 공연 등을 통해 세계의 일부가 디지털화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역설은 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피와 땀, 침과 똥이 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몸은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지금의 세계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시안적인 전망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눈을 감고, 저 너머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런 상상이야말로 바로 위기 속에서 예술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말처럼 지금은 예술이 당장은 충족될 수 없는 요구들을 다시 창조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 공연예술 지속에 대한 고찰 - 장수혜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지원 공고가 올라온 2020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세계는 위기 상황을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공연예술계 역시 멈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난 지금, 공연예술계는 여전히 '멈춤'과 '코로나와 함께 살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에 무엇이 해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몇 달간의 '멈춤' 속의 또 다른 '지속'을 위해 예술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는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문화 부흥의 시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공연예술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선언과 동시에 공연예술은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지속가능성보다는 생존을 위해, 수많은 국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기다리며, 그들이 하던 예술을 벗어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예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히 지원서에 적는 행정언어로 예술은 사회를 바꾸어야 했고(물론 정말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공연도 있습니다.), 공연예술의 확장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쳐야 했고, 남들보다 더 획기적인 융복합 예술의 아이디어를 내놓아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연의 기회를 위해 자비를 내고 공연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창작의 환경이 전적으로 '공연의 기회'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연예술'의 본질은 퍼포머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감(Liveness)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예술가는 온라인 공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잘 구축된 플랫폼이 없이 본래 공연을 그대로 살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온라인 공연만으로도 view를 올릴 수 있는 예술가(또는 단체)와 신진 및 독립 예술가들 사이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또 '비대면'과 관련된 수많은 지원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했기에 예술가들은 하던 방식을 멈추고, 어떻게든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더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지원사업에 합격했다면 예산을 반드시 올해 안에 써야만 했고 미룬다고 해도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회 수가 있든, 없든, 그 숫자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창작의 시간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내 작품이 무료로 인터넷에서 무한정 노출된다 할지라도 지속을 위해 온라인 공연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위기에서 국제정치 및 위생 상황에 따라 해외투어가 미뤄지고, 취소되고, 끊기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터트릴 수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연예술을 지속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불리 화를 내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공연예술은 유럽

지역에서 많은 초청을 받곤 하는데 2020년은 물론이고 2021년까지도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잠시 아시아 국가의 공연예술 작품은 최대한 보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부디 다음 기회에 다시 초청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4월, 문화기획활동 190시간으로 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해외 공연예술계의 동향과 사례들을 번역·연구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구축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가득했던 190시간이 끝나고, 지난 몇 달간 공연예술의 지속을 위한 현장의 몸부림을 돌아보면 '과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미래의 도입부에서 - 권시우

코로나19가 국내의 미술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가늠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24일 국립현대미술관이 무기한 휴관을 결정한 것을 기점으로 삼아, 많은 수의 미술관 및 갤러리 또한 그와 유사한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해 한동안 오프라인 상에서의 전시 관람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반적인 상황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는 언제든지 현재 진행 중인 전시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러한 표면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전시장들의 잇따른 휴관 정책은 미술이 그간 물리적인 환경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합니다. 즉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전시'라는 표현에는 항상 오프라인이라는 전제가 함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웹 전시나 스트리밍과 같은 형식을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면서, '전시'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포괄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이를테면 한때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 거론되던 때조차, 온라인은 지금처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니다. 즉 포스트 인터넷 아트라는 경향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의

단초라고 할 수 있을 온라인은 (2000년대에 활성화됐던 웹 아트를 상기시키면서) 다소 시대착오적인 대상으로 간주됐습니다.

다른 한편 스마트 미디어가 보편화한 이후, 가상에 의해 (재)매개된 현실을 주시하는 일련의 작업들의 경우, 대다수의 관객은 그것들을 픽션 차원에서 독해했을 뿐, 실질적인 문제로 체감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과학 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SF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에 의해 (재)매개된 현실"은 사용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모델을 탄생시켰지만, 이때의 사용자는 사이버네틱스에서 비롯한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은 SNS에 (과)몰입하면서 가상의 계정들을 일상 차원에서 운용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포스트-휴먼의 사례로 분류될 수 없지만, 그와 별개로 가상은 점차 재난 상황의 현실을 대체하는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결국 대다수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련의 작업들은 단순히 픽션으로 대상화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래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미술계는 온라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의 플랫폼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미래를 환대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주지하듯 실제로 전시라는 형식은 한때 시대착오적인 대상으로 간주됐던 온라인을 다시 수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네이티브는 건잡을 수

없이 증식하고 있고, 그것을 주시하는 작업들은 스스로가 단순히 픽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미래의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190시간에 대하여 – 정한수

가장 많이 듣는 염려.

‘먹고는 사니?’네. 먹고는 삽니다.

아니, 사실 저는 운이 좋습니다. 코로나사태가 터지고선 기존의 작업 방식으로 도모하던 일거리는 전무해졌습니다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생계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뭐가요?

청년기획자들을 위한 커뮤니티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서울 청정넷(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책으로 제안했던 사업에 공동 설계·진행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작업 방식?

스스로 지은 별칭 중의 하나가 ‘워크숍 재판기’예요. 하하. 선거 캠프에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갔던 적도 있고, 모 협동조합의 조합원 어르신들 간 대화의 장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기획과 관련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진행되는 일들이예요.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에 뚝 끊겼죠. 들어와 있던 일거리도 취소되고.

어땠나요?

음... 물론 막막하고 좌절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문제 해결형 인간이에요. 앞만 봅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을 위해서는 뭘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부터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기획자 플랫폼도 어쩌면 저의 이런 기질 덕분에 어찌어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흠, 어떤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신나게 잔뜩 많이 만나는 걸로 프로그램들을 설계했죠. 코로나 확산 추세가 될 때마다 플랜 갈아엎고, 갈아엎고, 그래도 너무나 멋진 협업파트너들 덕분에 고비고비마다 뺏세지만 잘 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사실상 다 취소하고,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줌미팅 등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다들 기획자라 그런지,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할 말이 많다 함은?

일의 영역에 있어서 각 분야의 기획자들이 일종의 '잠수함의 토끼' 같다고 생각해요. 기획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항상 사람들을 살피죠. 각자 나름의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을 텐데, 코로나가 한 방에 뒤흔들었잖아요. 저만 해도, 어떤 상황이 터지든 유연하게 대응을 잘하는 편인데, 활동의 기본이 만남 중심이다 보니, 어느 순간 병졌죠.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나도 바뀌어야겠구나. 사실 머리로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몸에 달라붙어 있는 감각이 그렇질 않다 보니, 'Back to normal은 없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조금 지나면 다시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뭔가가 가능할 거야.'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현재 본인의 좌표에 대해?

흥미로워요. 몸 감각은 본능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고집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특히나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이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해도 그들이 감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 나도 '라떼는 말이야'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말하면 트렌드를 캐치하고 따라잡는 거죠. 혹은 선도하거나. 예를 들어 스타트업 씬에서는 리모트워크가 생소한 게 아닌데, 문화예술 씬의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 신박한 거예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 결국 저의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소통을 매개하고, 서로의 시야가 확장되고, 재밌는 일들이 더 벌어지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달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시간에 놀기 - 조주리

프리랜서 기획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떤 호흡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창조적으로 시간을 미·적분하여 시간의 길이와 면적을 최대한 오므렸다 펼치내고, 미술의 시제를 이리저리 오가며, 지리와 장소를 벗어나고픈 초월적 욕망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달려오는 시간을 리드하고 싶은 욕망은 결정적 순간에 무엇인가의 뒤로 숨거나 꿈무늬를 빼고 싶은 나약함 앞에서 팍 수그러들고 만다. 태만함은 부지런하고, 나약함은 드세기에 나는 그것들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

지리멸렬하게 전개되었던 올 한해의 사건과 소동들은 공포와 무기력을 동반한 시간이었다. 사선(死線)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오가고, 이웃의 일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목도하는 일은 아직 불행이 당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공포를 전이시키고 불안을 대비하도록 한다. 불안의 정동을 잠시라도 떨쳐내기 위해 미운 것과 미워해야 할 것들을 골라내고, 냉대와 저주를 퍼붓는다. 그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이 단지 활동의 자유와 경제력이라면 다행이다. 불안에 잠식된 상태에서 빠르게 훼손되는 것은 판단력, 자존감, 여유 같은 심리적 자산이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조급하게 떠맡고, 꼭 했어야 하는 일을 가짜 이유로 회피하게 된다. 모두 나의 이야기다.

2020년은 내재된 우울과 태만을 정당화해줄 구실이자 한편으로는 무너져버린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야만 했던 역설의 시간이기도 했다. 많은 일이 없어졌고, 그만큼의 일들이 솟아나기도 했다. 미술 공간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4월 첫날, 극심한 긴장 속에서 첫 전시를 올렸고, 당차게 출격하는 작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6월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7월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어느 해보다 많은 문장을 생산했고, 다정한 설득의 말을 전해야 했고, 이름 모를 많은 이들과 틈틈이 소통해야 했었다. 치열한 과정에서 얻는 일의 즐거움과 결정의 외로움, 갈등과 후회가 뒤섞인 채 계절이 두 번 바뀌었고, 지금까지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맘이 커졌다 작아졌다 요동을 친다.

최근 나는 SNS에 연재할 목적으로 작가들과 원격 협업을 통해 그래픽 노블을 집필하고 있다. '뮤제오 팬데믹'이라 명명한 근미래 소설 속에서 나는 전세계 미술의 대암흑기인 '테네브라'(Tenebra, 어두움) 7년을 기록해 나가는 닥터 주니어로 등장한다. 미술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루미노소'(Luminoso, 빛)의 해를 맞이하기까지 7년간 나는 '창작상실시각예술' 연구 프로젝트에 매달리며 매일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나는 기꺼이 그 시간을 상상해 보려고 한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여유와 판단력, 그리고 약간의 유머를 챙기고 싶기 때문이다.

질주하듯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마음에 숨이 찬다. 시간 위를 마냥 달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포시 포개지듯 눕고 싶은 마음이 든다.
또 다른 삶의 속도와 방향, 예술적 삶이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던져본다. 190, 1900, 19000. 상실과 복구,
다시 펼쳐질 시간에 대한 상상 속에 벌렁 누워 본다.

**“지원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입장으로 짧은 소감을 남겨주세요...”
[190시간] 사업 설문조사 선택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의 답변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원사업이 만들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탈락 공지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뻐합니다. 추후 공지될 지원사업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후속 과정으로 설문을 요청하시는 것을 보며 문화재단이라는 곳과 조금이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기쁩니다.”

“어떤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기획을 하는데, 이 기획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만 연구개발 시간과 리서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0시간 동안 예술가 본인이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기획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190시간 지원 덕분에 기획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기민하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190시간이 다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지만 그 시간 동안 주제에 맞게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해준 작가들에게도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기획이라는 상상을 펼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상의 시간과 실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좋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 부분에도 신경써주고 챙겨주는 지원사업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0시간은 짧으면서도 길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하기까지
190시간은 완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해야 하는 개념적 동기
부여로서의 좋은 마감이었다.”

“코로나19 시대가 그저 막막한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삶을 돌아보고 다음 행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 혹은 팀으로 활동하는
(문화) 기획자가 정말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 기획자들은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1인 창작자와
독립기획자들을 독려해주길
바란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이
어려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려는 재단의 태도에 고마움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사업의 기획이나 진행 과정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잘
다듬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거나
지속되었을 때
좋은 대처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창의적인,
프리랜서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콘텐츠
개발자로서의 기획자에게 좀 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해요. 최소비용, 공간,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지원
방식을 준비해주시면 기획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기획만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
생겨서 기쁩니다. 보통 기획
과정은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한 190시간의
지원을 보고, 실현되기 전의
기획 과정 또한 노동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던 기획
초안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동기부여가 가장 크게 되었다.
자유 형식으로 과정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작성
도중에 더욱 자유로운 발상을
불러일으켜 보고서의 의미를
넘어서 아이디어노트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사업이 생겨났지만,
[190시간]만큼 예술가가 삶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 사업은 거의
보지 못했다. 지금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물을 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탈락 사유를 알고 싶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일,
특히 기획을 무척 하고 싶은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보통 작가들을 위한
사업은 있지만 기획자를 위한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활동들에 대해 결과와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지금까지 선정된
지원사업들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았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겹게 끌고 오던
프로젝트인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190시간 사업은 나의 의지와
열정에 ‘포기하지 않을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을에 성남에서 비대면 전시
영상을 선보일 계획이에요~^^”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기획자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을
해소했던 직접 지원사업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자'라는 역할이 문화예술계
내에서 불분명하게 인식되는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에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재단의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단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자라는 이름을
호명할 것 자체가 새로운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자는 종종 지원사업의 형식과
한계에 치여서 사업을 끝내는
것에 급급해지는 순간을 마주하며,
평소에 관심 있던 내용에 깊이를
만드는 과정을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기획자로서의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의
상황에서 문화예술인 및 기획자를
시의적절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나의 활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가질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다양한 담론들을
이러한 기회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의 선물이겠 같아요. 이 값진 기억들이 이후의 예술을 내다보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0시간 사업 지원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금액 없이 혼자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연구 및 기획을 사업을 통해 더 공식화하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모든 사업예산에서 기획자들이 할당받을 만한 예산이 거의 없는 편이라 경제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백스테이지에 있어야 하는 기획자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여타의 지원사업에서는 대표자나 기획자는 보수를 책정받지 못한다는 정책적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일정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기획과 구상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보기 드물게 담론 기획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서 더욱 유의미하게 2020년 상반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은 나의 언어로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끄집어 낼 수 있는 190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중간중간 받아보는 메일과 문자를 통해 단체 또는 예술계에 대한 소속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자를 호명해 주어서 기뻐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획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반가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예술 기획자들의 역할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기획자로서, 구상, 리서치, 연구,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간혹 이런 준비 과정이 산만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또 수행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결과를 내고자 함에 있어서도 단계를 나름 공식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더 큰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기획’이라는 직접적인 타이틀로 지원을 받은 게 신선했습니다. 형식의 우수성을 말하자면, 기획안의 간략함, 실행 조건의 간결성 등이 좋았습니다. 예술가들은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예술가를 믿고 맡긴다는 느낌과 절차의 간소함을 많이 원합니다. 190시간 같은 기획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길 희망합니다!”

“기획 및 제작을 할 때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건 아무래도 ‘강력한 마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행사와 전시가 연기 및 취소되며 이전의 활력을 잃었다는게 최근 본인과 본인 주변의 작가들이 활동을 하며 공유하는 감정인데요. 190시간 지원사업 덕분에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자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의 한계로 스스로가 성장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더욱 확장된 사고로 폭넓은 기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활동도 생계도 막막하던 중 190시간 사업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적지만 소중한 비용이었습니다. 활동과 생계를 모두 지원하는 숨통 같았어요. 게다가 지원서 작성과 이후의 절차들이 간결·편리해졌고 이 또한 큰 스트레스 없이 지원의 일종으로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 기획자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주신 본 사업에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특히, 문화예술 기획자들의 기획 시간과 그 고민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방향성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사업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상반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물질적·정신적 대비 같았어요.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받을 수 없고 비선정자도 나오겠지만, 기획자들의 책임감을 위해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만큼 선정의 성취감을 원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당 사업의 기회를 양보해주신 다른 기획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의 사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로 인정받지 못해오던 상상과 구상의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획자의 준비 단계가 나의 시간을 쏟은 업무로서

평가받는 게 감사 했습니다.
 기획자들은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가왔던 190시간이 이러한 준비 단계 역시 하나의 업무 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어요. 실제로 이 시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무료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실적을 중요시하는 대부분 지원사업과는 달리 190시간은 기획자나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고 생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창의적 창작 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공연시장을 제대로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기획의 시간을 배려해 주었기에 참 감사합니다.”

“[190시간] 지원사업을 통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서울문화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자의 역할이 자칫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기획 대행인으로 취급받는 형태가

난무했어요. 190시간의 지원사업은 기획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준 프로젝트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조력자의 역할에서 나아가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많은 지원사업 중에서 서류 작업이 가장 간편했던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경우, 결과물만 중시하고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서류 작업만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번 사업의 경우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많지 않은 지원금이었지만 사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예술가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나와서 흥미로웠으며, 고민만 해왔던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유익했습니다. 다소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밀도 있는 작업이 되지는 못했지만 실험해 볼 수 있었고 사업의 진행 방식이 유연한 편이라 진행하는데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다소 작았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획자에게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다음에는 더욱 길어진 일정과 지원금으로 더 좋은 과정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번지던 시기에 이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행위들을 통해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이 대외적으로 어떤 의미를 획득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자유로웠더니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 채워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원 과정 전반에서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원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상의 '시간', 생각을 숙성시키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형식적인 결과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획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프로젝트 기획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시간이 되었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적인 도움도 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급사업’이라는 지점에서 신속한 진행과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되 범위를 너무 확장하고 싶은 작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 기획자의 역량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기에만 급급했던 지난 몇 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언제 여유가 생기면 평소에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졌으면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의도치 않게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마침 [190시간]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재정적인 압박감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신작을 위한 나의 고민의 시간도 보장과 인정을 받는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술가는 일상과 작업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술가 즉 창작자로서 보호를 받는 기분이었으며,

자존감도 잃지 않고 작업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생활비조의)

지원금 교부에 포커스를 둔 사업이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 방향에 다소 치우친 ‘지원’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텍스트 메시지로 사업 프로세스가 소통되는 부분도 아쉬움이 큼니다). 개인의 기획적 발상을 품고 사유하는 데는 지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상호 간 ‘어떤 이후’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문화예술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시기, 190시간 지원사업은 기획자에게 이 시기를 무력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해보는 시간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원 과정의 전반에서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원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상의 ‘시간’, 생각을 숙성시키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 앞에 형식적인 결과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획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결과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한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동기가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위축과 고충을 겪고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연구와 기획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 고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기획자라는,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모호한 타이틀에 대해 인정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왔을 때 그 결과만을 보게 되기가 쉽죠. 이를 위해 수반되는 기획자, 예술가의 많은 생각과 고민에 190시간이라는 정량적인 옷을 입혀주어서 고맙습니다.”

“190시간이라는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그간 막연히 떠올리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심사평을 읽는 동안 진심어린 응원의 힘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190시간을 통해 그동안

기획 했던 일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해보고 싶었던 기획에 대하여 조사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 190시간은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며 기획이나 연구에 쏟을 여유가 실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족했었습니다. 돈의 규모를 떠나 타 지원사업에 비해 이 사업은 자율적이고 깔끔해서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제겐 자신감을 주었고 심리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기획은 늘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공하는 결과물로서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지지하고 심도 깊게 고민을 다질 수 있는 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획이 그간 결과물, 성과 중심의 기획에서 벗어나 기획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습니다.”

“작업 실행에 집중된 지원금이 아니라 ‘기획의 시간’을 위한 지원금은 기획에 대한 최초 지원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기획자와 기획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전문 기획자의 역할이 문화예술 작업에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90 HOURS

부록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문화예술분야 독립/프리랜서 기획자 군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활동이 멈추어버릴 듯한, 영원히 지속될 듯한 지금, 단 190시간 만이라도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낳는 시간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0명의 기획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는 22,800시간은 다시 서울의 문화적 상상력과 도시문화의 다양성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1. 지원사업명: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사업 [190시간]

문화예술 기획자 버전의 홈 레지던시(Home Residency)

- 자신의 작업/활동 세계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
- 작품 또는 프로젝트, 행사를 완결해 실행할 부담과 필요가 없는 실험과 탐구의 시간
-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들과 선찰과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획의 시간

2. 지원 대상(신청 자격):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독립/프리랜서 기획자

- 개인으로만 신청 가능
- 소속된 단체가 있더라도, 독립 활동 비중이 높은 기획자라면 지원 신청 가능

3. 지원 대상 활동: 서울의 도시문화, 예술문화 기획을 위한 190시간의 모든 활동

- 활동 기간: 4.10.(금)~6.30.(화) 기간의 190시간
 - ※ 공고일인 4.10.(금)부터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활동 유형: [기획], [실행], [답론] 3개 유형 중 택일하여 신청
- 활동 내용: 190시간에는 가시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구상, 상상, 대화 등 비정형적인 준비.과정의 시간을 모두 포함함
- 활동 결과: 목표 결과물만이 아닌, 새로운 시도.과정에 대한 기록 또한 포함
 - ※ 목표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하더라도, 활동 과정을 공유하는 결과보고서만으로 활동 증빙 가능

1. [기획]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는 190시간

- 용역사업의 챗바퀴에서 나의 가치, 통찰, 지향에서 비롯한 기획에 목말라 했던 기획자에게,
- 아예 새로운 기획의 시작이든, 서랍 속에 묵혀 두고 있던 기획안의 보강이든,
- 구상(a.k.a 명때리기, 그냥 걸기)에서 답사, 리서치, 인터뷰, 자문 받기, 멘토링 받기까지,
- 6.30.(화)까지의 목표 결과물: 기획안

2. [실행] 지금 바로 활동에 나서는 190시간

- 코로나19 종식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바로 그리고 먼저 움직이고자 하는 기획자에게,
-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코로나19 보건 대응 지침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 글쓰기, 대화, 캠페인, 작은 행사, 퍼포먼스 등 무엇이든 190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 6.30.(화)까지의 목표 결과물: '나의 기획'으로부터 현실로 나온 프로젝트(규모 무관)

3. [답론] 기획을 둘러싼 현황을 고민하는 190시간

- 나 혼자만의 창의성이 아닌, 이 도시의 창의성에 대해 진득하게 고민하고 싶었던 기획자에게,
- 서울의 도시문화, 기획자 관련 가벼운 에세이에서부터 진지한 연구와 토론까지 무엇이든,
- 나 혼자 하든, 여럿이서 함께 하든: 에세이 작성, 비평, 조사, 연구, 세미나, 토론 등
- 6.30.(화)까지의 목표 결과물: 에세이, 보고서, 자료집, 토론 녹취록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대응 지침에 어긋나는 활동은 지원불가 (감염 확산 방지 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기획자 자신의 건강 또한 소중히 여겨 주세요.)

4. 지원 금액: 1인당 190시간(2백만 원), 총 120명 내외 지원

- 지원 금액 산출 근거: 서울형 생활임금 10,523원 × 190.6시간 = 200만 원
- 지원금 성격: 개인용역비[선정자-서울문화재단 인(人)계약 체결]
 - ※ 소득세법에 의거해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공제 후 교부
- 지원금 교부 방식: 선정 후 개인별 계약 체결 및 전액 일시 교부(5월 내 교부)
- 지원금 정산: 지출 내역 정산 없이 활동 결과물 및 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

5. 지원 신청 접수 기간: 2020. 04. 10.(금)~ 04. 20.(월) 19:00 ※ 11일 간

6. 지원 신청 접수 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제출

- 필수 첨부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 ※ 첨부 파일은 최대 40MB 이하만 업로드 가능
 - ※ 4개의 질문에 대하여 가급적 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인적 정보, 번외 질문 제외)
- 제출 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한 지원 신청
 - ☞ 문화 참여 > 참여 신청 > 지원사업 >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사업" 신청" 클릭
 - ※ 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지원 신청 가능

7. 심의 방법: 전문가 서류 심의

- 1차 가부(可否/Pass or Fail) 평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지원 적합도 평가
- 2차 선정자 결정: 1차 평가 결과 부적합(Fail) 평가가 낮은 순으로 120명 이내에서는 바로 지원 결정
- 3차 점수 평가: 잔여 건 중 차점군에 대해서만, 개별 평가 점수를 부여.집계하여 잔여 지원 대상 선정
 - ※ 단, 신청 접수 건수에 따라 심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공모 접수 후 상세 심의 방법 및 심의/발표 일정을 재공지 예정

8. 심의 기준

» 신청자의 기획 역량(50%)	· 서울의 기획자로서 문화 기획 역량 (최근 기획 활동, 이력 및 주제 선정)
» 활동 기획의 적절성(50%)	· 활동의 필요성(주제 선정 등) · 활동의 충실성(190시간 구성 계획)

9. 향후 일정

- 신청 접수 마감 기한: 4. 20.(월) 19:00
- 심사: 4. 22.(수)~29.(수)중 예정
- 선정 결과 발표: 4. 30.(목) 예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
※ 신청 접수 건수에 따라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결정되므로, 변동이 있을 경우 공모 접수 후 상세 심의 방법 및 심의/발표 일정을 재공지할 예정
- 선정자 계약 및 지원금 교부 : 5. 6.(수)~5. 29.(금) (계약 및 서류 제출 순으로 교부)
- 활동 마감 기한: ~6. 30.(화)
-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6. 1.(월)~7. 31.(금)

10. 결과 공유

- 지원 선정자의 활동 과정은, 온라인 아카이빙, 오프라인 포럼 등을 통해 서울의 기획 활동과 도시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공유할 수 있음

11. 유의 사항

- 개인당 1건(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서울문화재단 추경 사업(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예술교육 연구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기획공모,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간의 서로 다른 사업으로는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지원한 동일한 활동으로 추경 사업 내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시 반드시 지정 양식에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자에 한해 작성 내용이 아카이빙 자료, 결과보고서 등 공익적 자료에 활용될 수 있음
-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12. 문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02-758-2086, 2087, 2076
- 문의 가능 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 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 지원 신청 부적격자: 붙임 1 참조

- ※ 붙임
- 1. 지원 안내 사항
- 2. 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 1] 지원 안내 사항

■ 다중신청 및 다중선정 관련 기준

- ✓ 2020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2020 서울예술지원 1, 2차 등)에 선정된 동일 주체의 동일 사업의 경우는 중복 신청 불가(동일 사업이 아닌 경우 중복 신청·선정 가능)
- ✓ 동일 사업이 아닌 경우,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추경 관련 사업 간 동일 주체가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야 함
※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추경 관련 사업: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예술교육 연구 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 ※ 동일 사업 판단 기준: 동일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 내용, 인적·물적 구성 요소, 동일 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지원 신청 제한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 부적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서울시에 활동 거점을 두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단체) 및 기획자(활동가)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단체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개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각종 범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경우 - 지원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 조치 통보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2020 서울예술지원 1, 2차 등)에 선정된 동일 주체의 동일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 가능)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 추후 사업 선정 이후에도 위의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가능

[붙임 2] 지원 신청서(양식)

※ 지원 신청 접수 마감: 2020. 04. 20.(월) 19:00/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시스템

서울문화재단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지원 신청서

지원 유형 3개의 활동 유형 중에서 택일하여 신청 필수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로 표시

- [기획]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는 190시간
- [실행] 지금 바로 활동에 나서는 190시간
- [답론] 기획을 둘러싼 현황을 고민하는 190시간

[190시간] 활동명			
[190시간] 활동 소개			
활동 기간/ 장소	2020. . . ~ . . . ※ 행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기획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 바랍니다. ex) OO동 자택, OO동 작업실		
신청자명		생년월일	
개인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		

신청자(개인) 본인은, 예술인(독립/프리랜서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리, 심의 진행, 선정자 관리,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공모사업의 신청·접수 관리, 심의, 선정 후 관리, 홍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활동 경력 등
 <개인정보 이용 기간 및 방법> 지원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제공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동의하였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_____

Q1. 자기 소개

- ☞ 기획자로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 ☞ 최근 자신이 기획했던 인상적인 프로젝트 세 가지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Q2. 활동 소개 (활동명 :)

- ☞ 이번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 ☞ 이번 190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 ※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번외 질문] 각종 재난 위기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 제안해 주세요.

- ※ 본 질문은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그렇기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 FAQ

Q1. 선정이 되면, 전시/공연, 행사, 출간, 캠페인, 포럼 등 반드시 무언가를 실행해야 하는지요?
 A1. 아닙니다. 본 지원사업은 [기획], [실행], [담론]의 구성 과정에서 기획자의 시간이 투여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 '190'시간의 결과물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 보고는 190 '시간의 일지' 등의 증빙 자료가 아닌, 190 '시간의 의미'의 작성만으로 충분합니다.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는 가시적 활동만이 아니라, 구상의 단계, 상상하고 대화하는 준비의 단계, 조사하는 단계, 마무리 후 평가하는 단계 등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증명하고 증빙해야 하는 '190'시간이 아닌, 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190'시간을 상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4월 10일 이전부터 이미 시작한 활동은 신청할 수 없나요?
 A2. 4월 10일 이전부터 이미 시작하셨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도 190시간을 더 진행할 예정인 활동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월 10일 이후의 활동이 190시간에 못 미쳐, 공모 접수 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활동이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3. 여러 예술인이 협업하는 활동일 경우에도 개인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본 지원사업은 독립/프리랜서 기획자의 활동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독립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 역시 1명의 개인 기획자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활동에 대한 여러 협업자의 신청은 불가능하나, 명확히 구분되는 각자의 활동을 하되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협업하는 경우라면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협업그룹이 일시적인 콜렉티브 등의 성격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성격이 강할 경우엔 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서울에 거주지, 작업실이 없어도 서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A4.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획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시 서울의 기획자로서의 경력이나 역량에 대해 일부 평가할 예정입니다. (서울 문화예술 씬이나 서울의 도시문화 관련 기획 경력 및 역량)

Q5. 소득 수준, 코로나19 피해액이나 기획 이력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A5. 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시기 활동 기회가 줄어든 독립/프리랜서 기획자의 활동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별도의 소득 수준, 코로나19 피해액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받지 않습니다. 단, 기획 이력의 경우 심사 시 일부 평가 대상이나, 이에 대해서도 <지원자 책임 신청제> 기초하에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증빙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지원 신청서의 내용과 분량에 제한이 있나요?
 A6. 신청자 기본 인적 정보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번의 질문을 제외한, 공식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은 문서 편집 프로그램(한글, 워드) 기준 총 4페이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지나 도표 등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여 4페이지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다소 간의 조정은 가능하나, 긴급지원사업의 성격상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7. 기획, 실행, 담론 세 가지 활동 유형의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7. 현재로서는 유형별 심사를 진행하거나, 유형별로 선정 비율을 특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신청 건수가 500건 이상일 경우에는 1주일 내로 심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유형별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Q8. 기존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추정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8. 기존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프로젝트로는 추정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4개 추정사업 지원 신청을 할 때 한 사람당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선정되실 경우에는 1개 지원사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9. 다른 코로나19 대응 추정사업도 개인 기획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 지원사업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A9. 본 지원사업은 기획과 관련한 제반 활동 그 자체를 지원합니다.
- 1) 4.17.(금) 접수가 마감되는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의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또는 공연·전시 발표가 가능해야 합니다.
 - 2) <예술교육 연구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은 '예술교육'이라는 명확한 활동 영역/주제에 대해 지원하오니, 예술교육과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할 기획자는 본 사업이 아닌 <예술교육 연구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기획공모>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술인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 중의 일부는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관련 주제의 활동을 준비 중인 기획자는, 가급적 본 사업이 아닌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기획공모>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예산 추가 확보 및 심의 변경 계획 등의 추가 공고, 심의평 등 심의 결과 공고는 본 [기획집] 책자 날개에 기재된 아카이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선정자 안내 자료

긴급지원의 성격상, 빠른 행정 처리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행정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거나, 행정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되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향후 일정

- 중복 선정자 포기 신청 접수: ~5.8.(금)
 - ※ 대상자에게는 별도 우선 연락
- 지원금(용역비) 지급을 위한 온라인 협약서 발송 및 전자 서명: 5.8.(금)-5.15.(금)
- 지원금(용역비) 지급: 5.12.(화)-5.25.(월)
 - ※ 협약 완료 및 통장/신분증 사본 제출 완료 순으로 지급 예정
- 활동 진행 및 마감: ~6.30.(화) 이내 190시간 활동 진행
-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6.1.(월)-7.31.(금) 내 필수 제출
- 활동 과정 아카이빙: 5-6월 상시 진행(필수 아님)
- 결과공유회(포럼): 9-11월 중 예정(선정자 참석 필수 아님/ 온라인 진행 가능)

2. 지원금 교부 신청 방식 및 기한

- 지원금(용역비) 지급을 위한 온라인 협약서 작성(필수 제출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선정자 개별 온라인 협약서 발송 예정(문자 및 이메일)
 - 협약서 작성 방식은 **별첨 1 온라인 협약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함
 - 협약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성희롱·성폭력예방서약서 포함) 내 필수 작성란에 등의 체크 및 내용 기입, 서명란 서명 후,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제출

☞ [온라인 협약서] 작성 시, 필수 첨부 서류

: 본인 명의의 신분증 스캔본, (계좌번호, 예금주명 확인 가능한) 통장 첫째 면 스캔본
 ※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이 깨끗하고 왜곡되지 않게 사진을 찍어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우선 문의 요망
 ※ 계약서 최하단에 (첨부 1. 첨부 2. 빈 페이지) JPG 이미지 파일로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활동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활동계획서 *별첨 2] 활동계획서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sos190@sfac.or.kr 이메일 제출 / `메일 제목: 선정자명_활동계획서 제출`로 기입하여 제출바랍니다.

☞ [온라인 협약서] 작성 시, 최하단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선택 **必**
 각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자 개별 소득세를 반드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업소득은 꾸준하고 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은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매년 5월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정산을 꼼꼼히 진행해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각자 조건에 따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가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금의 경우 협약에 의거한 용역비 방식으로 지급
 - 협약 시 선택한 소득세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의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계좌 입금 예정
 - 협약서 및 필수 서류 제출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되는 순으로 지급 예정
 - ※ 5.25.(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려 합니다. 5.26.(화)에도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고, 서울 문화재단에서 먼저 연락도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우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 진행 방식

- 신청서의 활동 계획에 근거하여 개별 활동 진행
 - 단, 지원금 교부 후 활동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에 논의 권장(활동명, 활동 기간, 활동 내용, 활동의 결과물 등)
 - ※ 변경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나, 편한 마음으로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90시간, 또는 200만 원에 비추어 기존에 구상한 계획보다 과도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음
 -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에도 활동 과정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추가되며, 활동 과정은 충실히 진행하였으나 활동의 결과물이 예상과는 달리 없거나 작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사업 포기 관련

- 지원금 교부 이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포기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sos190@sfac.or.kr)로 제출하여야 함 **별첨 3** 사업포기신청서
- 지원금 교부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 <사업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반환 처리함
 - 본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유로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향후 지원 신청배제 등의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음(단,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함).

포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로는, 이번 서울문화재단의 5개 긴급지원사업에 동일한 신청자가 여러 사업에 선정된 경우와 다른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동일한 활동에 대해 중복 선정된 경우(서울문화재단에서 먼저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선정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190시간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기를 신청하실 경우 예비 선정자분들께 지원이 승계될 예정이오니,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기간 : 6월 1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활동 결과보고서 양식은 5월 말에 선정자 개별 이메일로 공유하여 안내할 예정임
 - 활동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자체 평가 위주로 양식을 제공할 예정임
 - 별도 활동 결과물(기획안, 세미나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첨부 제출하며, 공개 시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임

6. 활동 과정 아카이빙

- 활동 과정에 대한 이야기 기록 작업: 5-6월 상시 진행
 - 선정자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사전에 참여 의사를 파악한 후 선정자-기록자 간의 일정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진행 예정
 - 개별 영상 촬영 및 전체 사업 영상보고서 제작 / 개별 인터뷰 기록집 / 비대면 아카이빙 작업 등 고려 중
 - 활동 과정 아카이빙의 결과물(기록집 및 영상)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 및 홍보 채널을 통해 공유 가능

7. 결과공유회(포럼)

- 결과 공유회 : 9-11월에 1회 진행 예정
 - 라운드테이블 방식, 포럼 방식, 공유회 방식, 네트워킹 방식 등 방식 구상 중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전 거리 유지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진행 가능성 있음
 - 비공개(선정자 대상 closed)가 아닌 서울의 도시문화, 기획 활동에 대한 공개 행사로도 개최 고려

8. 후원 표기

- [190시간] 활동의 '직접적인' 홍보물 및 결과물에는 후원표기를 부탁드립니다(아래 택일).
 - ※ [190시간]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원 표기 없어도 무방
 - 후원 표기 방식 ① - 기관명
 - ☞ [이미지]  서울문화재단
 - ☞ [텍스트] 후원: 서울문화재단
 - 후원 표기 방식 ② - 사업명
 - ☞ [사업명#1]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 선정
 - ☞ [사업명#2] 서울문화재단 <190시간> 사업 선정
 - ☞ [사업명#3] 이 전시(책, 음반, 공연 등)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의 후원으로 제작(발간)되었습니다.
 - ☞ [사업명#4] 이 전시(책, 음반, 공연 등)는 서울문화재단의 <190시간> 사업으로 제작(발간)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로고 다운로드 방법

홈페이지 (www.sfac.or.kr) > 기관 소개 > 서울문화재단 CI > 시그니처 > CI 다운로드

9. 기타 유의 사항

- 활동 진행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식에 따른 보건 대응 지침 준수 요망
 - 대인원이 모이는 집단 행사 진행 시, 반드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집단 방역 기본 수칙'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진행 시 문의 사항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sos190@sfac.or.kr) 02-759-2086, 2087, 2076로 연락바랍니다.

※ 별첨

1. 온라인 협약서 작성 매뉴얼
2. 활동계획서(사업 내용 변경 시)
3. 사업포기신청서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190시간] 사업의 개별 진행하신 활동에 대하여 작성하는 <활동 결과보고서>의 양식에 대한 안내와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는 [#190시간을 공유합니다]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기한 및 방식 → 필수 사항

- 제출 기한: 6.5(금)-7.31(금) 기간 내 필히 제출
- 작성/제출 방식: 지정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이메일 제출(sos190@sfac.or.kr)
 - 모든 선정자께서는 해당 양식에 맞춰서, 기한 내에 본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오니 부담 없이 짧게 적어주셔도 무방하나, 양식보다 많이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분량 없이 필요하신 만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0시간을 공유합니다> → 선택 사항 1

- 활동 과정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록을 기획자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190시간" 혹은, "#190시간을 공유합니다" 해시태그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자유 내용·형식·채널을 통하여 개별 활동을 기록해주세요.
 - 재단이 지정한 양식, 내용, 채널을 통하여 아카이빙을 하는 것보다, 기획자 각자에게 가장 익숙한 채널 혹은 활동 유형에 맞는 방식과 내용을 통하여, 각각의 190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 분이 반드시 의무로 진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횟수나 내용, 분량, 형식 등이 정해진 수행해야 하는 필수 과제 같은 사항이 아니기에 의무감으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었다고 느낀 '190시간'을 또 다른 기획자 혹은 주변의 동료나 대중에게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실 때에 개별 190시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190시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3. 활동 결과물 첨부 → 선택 사항 2

- 개별 진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활동 결과물이 있는 경우 선택 제출 가능합니다(필수 아님).
 - [190시간] 사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온 활동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 자유롭게 제출 바라며, 혹은 간접적으로 나온 결과물이더라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도 첨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선택 제출해주신 '활동 결과물' 자료에 대하여 재단 외부에 공개 및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경우, 동의하지 않음에 표기해주시면 되며, 이 경우 재단 내부적으로만 해당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첨부할 결과물을, <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내에 첨부해주셔도 되고 별도의 파일로 따로 첨부할 수도 있으며, 양식 내 자료가 원본이 아닌 홈페이지, 영상, 유튜브, 드라이브 링크 등을 기입해주셔도 됩니다.

※ 설문 링크(안내 본문 및 문자 발송)

- 이후 함께하기 위한 자리와 방법에 대한 참여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링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편하게 응하여주시면 함께 그 자리를 논의하고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큰 부담 없이 답하여 주시면, 이후 자리에 대하여 개별 연락드려 함께 논의 드리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sos190@sfac.or.kr) 02-759-2086, 2087, 2076으로 연락바랍니다. (190시간 사업 관련 내용이나 사업 외 내용을 제한하시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활동 결과보고서(양식)

서울문화재단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활동 결과보고서			

선정자명		활동 분야	기획, 실행, 담론(택)
활동명			
추진 기간			
핸드폰		이메일	
주소			
'기획자' 유형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획자'로서의 유형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90시간' 활동 유형	이번에 활동하신 190시간의 활동 유형을 키워드로 적어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p>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 활동 결과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선정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시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190시간 사업 개별 활동 결과 보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내용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p>
<p>선정자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업 연구, 공유를 위해 사업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p>

선정자 본인은 본 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내에
개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_____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 귀하

Q1. [기획자 000의 190시간] 어떤 190시간을 보내셨나요?

- ※ 기획자 000의 190시간에 대하여 나눠주세요. 스스로를 위해 어떤 '190시간'이었던지 혹은, 190시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나눠주세요.
- ※ 작성 Tip,
신청 시 구상했던 활동을 통하여 190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하여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그리고 이를 서울문화재단에도 공유해주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로운 에세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활동의 묶음 별로 작성하는 것도, 시간대나 일자별의 시간 순서대로의 활동을 작성하는 것도, 드로잉이나 순서도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도 모두 무방합니다

Q2. '190시간'이 남긴 것들, 혹은 '그 다음'에 대하여

- ※ 190시간의 이후, 그러본 '다음'의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획' 혹은 '기획자'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190시간을 보내면서 떠올렸던 생각, 혹은 동료 기획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혹은 질문에 대하여 내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선택 1] "#190시간을 공유합니다."

- ※ 안내 자료 2번 항목에 해당하는 "#190시간을 공유합니다"를 실행한 링크(URL)를 기입바랍니다.
- "#190시간을 공유합니다" 링크(URL):
 -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유롭게 더 진행하셔도 됩니다.

[선택 2] 활동 결과물 첨부

- ※ 개별 진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활동 결과물이 있는 경우 제출바랍니다.
- 활동 결과물 제출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190시간] 사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온 활동 결과물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나온 결과물이더라도,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선택 제출 자료 목록
- -
 -
 - 선택 제출 예시: 기획안, 세미나 자료집, 연구보고서, 행사 사진, 영상 등 모두 가능
 - 결과물의 개수에는 제한 없음
 - 활동 결과보고서 파일과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주셔도 되며, 별도 파일이 아닌 드라이브 링크 혹은 결과물 URL 및 동영상, 홈페이지 링크 등을 기입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선택 제출한 [활동 결과물] 자료에 대하여, 재단이 외부에 공개·공유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음'에 선택할 경우에는 첨부해주시는 자료를 재단 내부적으로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190시간] 후속 과정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후속 과정을 위한 사전 설문 조사 진행>

서울문화재단 <190시간> 사업 담당 부서인 지역문화팀에서는 사업 후속 과정을 준비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공통의 관심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선정된 기획자 230분을 대상으로, 사전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주제별 그룹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 질문 ①: 이후, 서울문화재단과 '190시간' 과정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질문 ②: 혹시 이후 만나는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큰 두 가지의 질문으로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7일간, 응답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정자 230분 중, 총 203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그중 ①번 질문, 후속 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124명(61%)이 응답을 해주셨고, '참여할 의향이 없다'에는 75명(37%), 미 응답 4명(2%)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75명 중, 49명의 기획자분들께서는(불가피한 사정 /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지만) 후속 모임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제안받은 총 165건의 주제를, 크게 5개의 카테고리, ① 지원사업, ② 190시간 개별 활동 공유, ③ 기획자의 삶과 네트워킹, ④ 코로나 시대의 예술, ⑤ 기타' 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 ① 지원사업 (32건): 기획자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혹은 후속 지원, 기획자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제안
- ② 190시간 개별 활동 공유(38건): 활동 과정과 성과, 190시간의 의미,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제안
- ③ 기획자의 삶과 네트워킹(40건): 변화된 기획자의 일상에 관하여, 혹은 협업을 위한 동료와의 네트워킹에 대한 제안
- ④ 코로나 시대의 예술(41건): 코로나로 인한 예술 흐름, 예술의 의미에 대한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제안
- ⑤ 기타(14건): 장애 예술, 시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 총 165건 제안 주제에 대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1차 카테고리화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하여 <190시간> 사업에서는 6월 중순 ~ 말 사이 총 6회 차의 모임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 다른 기획자의 작업이 궁금해요 (2회차)
- 코로나 이후 기획자의 변화된 일상과 적응하는 태도에 관하여 (2회차)
- 어디까지가 기획자일까 (2회차)

그러나 이태원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던 중,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 시 모집 가능한 최대 인원을 최대 7~10인임을 감안하였을 때) 온라인 그룹 모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후속 모임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속 과정의 목적에 대한 재고민 시작>

저희는 “후속 과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 혹은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유익미한 데이터를 남기는 작업” vs “사업의 확산성” 혹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점”의 세 가지 중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유의미한 데이터를 남기는 작업이 단기에 확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본 사업 취지를 살리는 확산의 방식’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190시간> 기획자 중 총 네 분의 기획자를 급하게 찾아가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3회차로 나누어 진행된 개별 자문 회의에서는 “개별 활동 아카이빙은 예산과 재단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 반면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230명이라는 활동 결과를 일회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는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반면 흥미롭게도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구성안은 <190시간> 사업에 대한 내부 설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의 긴급성에 관하여 재단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내부의 고민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에서 사업 결과만 기록하는 결과 집보다는 생각을 도출하였던 내부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의 과정, 행정 철학, 고민의 지점들을 이번 기회에 남기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과정에 대한 큰 틀을 다시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8월 ~ 9월 약 60일간 진행될 190시간 후속 과정>

<190시간> 사업의 후속 과정은 크게 두 가지(① 참여자 사업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 ② 기획집)로 구성되어있으며 진행 기간은 8월에서 9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 참여자 사업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는 <190시간> 사업의 수요에 대한 파악과 평가를 위함이며 설문지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와 FGI(사례자 약 20명 대상)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② 기획집은 본 사업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함이며 본 사업의 설계 과정, 실행 중 고민의 지점, 동시대 살아가는 기획자들의 고민의 지점, 코로나19가 남긴 질문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기록의 작업을 통하여 내용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긴 고민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그간 하였던 깊은 고민들을 통하여 약 60일, 두 달간 후속 과정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중으로는 사업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한 링크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7월 31일 금요일은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오니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정리하시어 기한 내에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190시간> 담당자 드림.

서울문화재단 [190시간] 사업 평가 및 정책 수요 파악 설문 조사

본 설문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진행한 [190시간] 긴급지원사업의 평가 및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190시간] 사업이 공공의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과, 지원 대상에서 지닌 특수성이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업의 신청자이기에 설문 응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33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기획/기획자의 유형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단답형)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단답형)
3. 귀하께서는 '문화 기획'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단답형)
4. 귀하께서 연간 기획하시는 프로젝트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개 (단답형)
5. 귀하의 기획 활동 형태는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개인
 단체
 콜렉티브 그룹
 기타
6. 기획 활동 외에 생계를 목적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생계 목적 활동의 고용 형태

- 6-1. '예'로 답하신 경우 다음 중 고용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정규직(상용직 노동자)
 임시직(계약직 등)
 기타 _____

7. 본인이 수행하신 문화예술 기획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예술 기획 문화 기획 공연 기획 전시 기획 출판 기획
 영상 기획 축제 기획 도시 기획 교육 기획 홍보 기획
 방송 기획 여행 기획 공간 기획 디자인 기획 건축 기획
 게임 기획 마케팅 기획 브랜드 기획 기타 _____

참여 지원사업

8. 귀하께서는 이전에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문화 기획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 8-1. 최근 3년간 참여하신 문화 기획 관련한 지원사업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190시간] 사업 선정 여부

1. 귀하께서 최초 [190시간]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한 경로는 무엇입니까?
 [190시간] 사업 관련 페이스북 홍보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글
 문화 기획자 네트워크
 기타
- 1-1. 귀하께서는 190시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다
 그렇다

[190시간] 사업 운영에 관한 설문

2. 코로나19라는 조건과 '긴급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으로 인해 [190시간] 지원사업은 기존에 대면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온 과정(1. 온라인 선정자 간담회, 2. 안내 자료 교부, 3. 지원금 교부를 위한 협약 체결)을 모두 비대면-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비대면 절차의 평가에 관한 설문입니다.

- 2-1. 자료 교부 방식(온라인)은 편리하였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2-2. 안내 자료(영상/안내 자료/협약서 작성 매뉴얼)는 사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 이해하기에 충분하였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2-3. 협약서 작성 방식(온라인 결재, 글로싸인)은 편리하였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2-4. 귀하는 비대면-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참여자 교육, 안내 자료 교부, 지원금 교부를 위한 협약 체결의 과정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 2-4-1. '아니다'에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190시간]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내에서 문화 기획자들의 삶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귀하께서는 참여자로서 [190시간] 사업의 접수, 심의, 선정, 지원금 지급의 절차가 '긴급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0시간] 사업 관련 세부 양식 평가 - 지원신청서

4. 기존의 문화 기획자 지원사업이 '프로젝트'를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면, [190시간] 지원사업은 '문화 기획자' 군의 기획 시간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획에 필요한 앞단의 구상을 위한 시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4-1. [190시간] 지원사업은 지원의 신청 분야로서 활동 유형 항목을 '기획', '실행', '담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시간] 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서는 'Q1. 자기 소개'와 'Q2. 활동 소개'라는 두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서 양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 4-1-1. 이해하기 용이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2. 작성하기 편리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3. 사업 목적(긴급지원)에 부합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4. 사업 목적(기획자 지원)에 부합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2. 귀하는 지원 분야(기획/실행/담론)와 지원 신청서의 문항 항목 구성이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 4-2-1. '아니다'에 응답하신 경우,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0시간] 사업 관련 세부 양식 평가 - 활동 결과보고서

- 4-3. [190시간] 지원사업의 활동 결과보고서는 'Q1. 어떤 190시간을 보내셨나요?'와 'Q2. 190시간'이 남긴 것들, 혹은 '그다음'에 대하여'라는 두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래는 결과보고서 양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 4-3-1. 이해하기 용이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3-2. 작성하기 편리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3-3. 사업 목적(기획자 지원)에 적합했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4. 귀하는 결과보고서의 항목 구성이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4-4-1. '아니다'에 응답하신 경우,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5. 귀하는 [190시간] 지원사업의 지원(지원서, 선정(심사), 보고(활동결과 보고)의 절차가 '기획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4-5-1.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에 응답하신 경우,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금 사용 관련

5. 귀하는 [190시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지원금을 다음 항목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셨습니까? 전체를 100%로 할 때, 항목마다 사용한 비율을 표시해 주십시오.
※ 반드시 전체를 100%로 할 때, 항목마다 사용한 비율을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문화 기획 활동을 위한 직접 비용(시설비, 섭외비 등) _____%

5-2. 문화 기획 활동을 위한 간접 비용(세미나, 교육, 리서치 등) _____%

5-3. 생활비 _____%

5-4. 기타 _____%

6. 귀하는 금년도 추진된 [190시간] 지원사업이 귀하의 문화 기획 활동과 관련한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6-1.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지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객관식(중복 선택 가능)

- 경제적 지원
- 불안감 해소
- 기획 활동을 위한 시간의 확보
- 기획 활동의 동기부여
- 기타 _____

6-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어떤 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 지원금의 규모가 작음
- 활동 기간이 짧음
- 코로나로 인한 상황의 어려움
- 지원사업 방향의 불명확함
- 기타 _____

7. 귀하는 금년도 추진된 [190시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7-1.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에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귀하는 금년도 추진된 [190시간] 지원사업이 차후 다시 시행될 경우, 주변의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권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 [190시간] 사업이 추후 다시 진행될 경우, 꼭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택 설문] 문화예술 기획자 지원 및 지원 체계

1. [190시간] 지원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짧은 소감을 적어주세요. * 기획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19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2. '기획자' 지원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 비용(직접 지원)
- 공간지원
- 네트워크 간접지원
- 활동기회 제공
- 기타 _____

3. 현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획 활동을 수행하면서, '기획비'를 적절하게 책정하거나 책정받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31. '아니오'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기획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획의 앞단 즉 '구상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이상적입니까?

시간의 일지 형식

기획안(이후 진행될)

자유양식 및 내용

느낌 및 소감

기타 _____

5. 코로나 시대와 같은 재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지원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0 HOURS

[190시간] 사업에 함께해주신 분들

190시간 기획자(230인)

강나무	김수정	문현정	신혜진	이경미	임민지	조응철
강상훈	김수진	박마리솔	심규선	이길한	임예지	조하나
강은미	김시우	박미연	심소미	이다은	임정서	좌동엽
강정아	김영글	박미주	심연정	이동민	임종은	차민재
강지웅	김영미	박새봄	심재경	이미진	임지수	차정훈
고대영	김영현	박서은	심준보	이민우	임현진	차지량
고우리	김유빈	박선엽	안신영	이민재	장수혜	차혜림
고윤정	김은미	박선영	안지은	이병희	장혜령	최늘샘
구선아	김은지	박선주	안진우	이상언	장혜정	최다정
구하나	김은진	박성연	양민영	이선우	전민지	최석규
국지수	김은한	박성은	양윤희	이수경	전세훈	최영애
권정현	김재우	박수지	양정훈	이승주	전솔비	최인선
권태현	김재현	박신애	양현경	이승혁	전영주	최정은
권혁규	김정민	박우진	여혜진	이연수	전윤환	최지혜
권효진	김정연	박유한	연지성	이연숙	전지윤	최혜미
길도영	김지연	박은정	오로민경	이원경	정경우	최혜영
김가영	김지연	박은지	오승연	이윤신	정다빈	추예원
김나영	김지연	박진석	오어진	이은선	정민규	추태영
김남수	김충남	박초아	오정석	이은주	정민영	한문희
김덕원	김현종	박현정	오정은	이재순	정소은	한솔
김도영	김혜영	박현주	오채원	이재영	정일건	한주옥
김동용	김혜원	방혜진	옥민아	이정아	정진하	허나영
김미소	김효정	배병욱	용선미	이정윤	정진화	허선희
김미영	김희선	배수진	우희서	이정은	정혜정	허수영
김민규	김희정	배유리	원을미	이주하	정혜진	허혜경
김민정	남하나	백수혜	원지영	이준영	정희영	허호정
김보경	도연수	백승서	유상숙	이지연	정희영	홍정아
김선문	류석현	변정아	유화수	이충열	조수미	황도민
김성민	류현미	변현주	윤민화	이한범	조승희	황선정
김성우	명선희	서진호	윤서영	이현만	조아라	황윤지
김성진	모은미	서희	윤수향	이희진		
김성필	문경덕	손혜경	윤이나	임가영		
김세진	문다빈	송고은	윤지현	임경용		
김소은	문선아	신예슬	이건희	임나래		

2020 예술인(문화예술 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발행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

사업 총괄

서울문화재단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사업 운영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김진환, 유민성, 최아람, 이솔

심의

고주영(독립기획자)

김미소(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총괄 감독)

김월식(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남윤일(두산아트센터 프로듀서)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유다원(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공동대표)

원대로(前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기획실장)

임성연(무소속연구소 대표)

원고 기고

권시우(미술비평가)

정한수(프리랜서 기획자)

조주리(독립 기획자)

기획-홍보

이성휘(하이픈엘와이 디자인스튜디오)

평가 연구

채태준(청년오픈플랫폼V,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송효원(청년오픈플랫폼V)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서울문화재단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ISBN 979-11-86489-27-7

본 기획집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HOURS

190



